

김유석 전공영어(일반영어/영미문학) 합격 가이드

2020 시험을 통해
일반영어가 영어 임용합격의 지름길임을 모두 알았습니다.
그 중심에 김유석 선생님이 있습니다.

■ 목차 ■

◆ 2020학년도 1차 수강후기 및 시험후기	3
◆ 2020임용시험 변경안	14
◆ 최근 5개년 공립중등임용시험 전공영어 모집인원	15
◆ 최근 4개년 공립중등임용시험 전공영어 1차 합격선	16
◆ 일반영어/영미문학의 중요성	17
◆ 적중문제	18
◆ 수강후기	22
◆ 김유석 교수 커리큘럼	37
◆ 김유석 교수 소개 및 저서	42

2020학년도 중등임용 영어 1차 시험후기

1. 영교도 영어학도 결국은 일명이었구나. 어제 시험 보면서 진짜 일명이 답이다.

무조건 일명이 먼저. 시간이 남으면 영어학 영교 공부를 해야 겠구나 생각했어요. 파워 때 그렇게 연습 많이 한 토픽 센텐스 쓰기가 시험장 가니깐 영교에 나와 있더라구요. (진짜 카페에 시험전날 출제위원 공지하신 그 분이 같이 내신듯요.) 그거 파워리딩스킬 수업때 기억을 되살렸더라면 그렇게 5분 넘게 쓰지는 않았을 텐데요. Needs Analysis 대문자로 확실하게 쓰구요. 써머리 문제 또한 파워 때 좀 더 연습 많이 해볼걸요. "지금 트포할 때냐, 단어 외우지도 못한 주제에" 진짜 단어도 웬만큼 외우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더 외워야 했었던 것 같아요 πππ 단어도 방대하게, 지문도 방대하게 이번에 밀줄 곳고 의미 쓰라는 문제가 유난히 많았는데 쇼프로즈 시간에 참 연습 많이 했던 거 같은데, 그때 좀 더 열심히 다 해봤으면. 사센도 좀더 열심히 듣고 더 다양한 문장으로 옮겨 놓았더라면. 모의고사 때 희곡도 많이 다루어주셨는데 그 때 열심히 해서 트라우마 극복해놓을걸. 시간이 남으면 영어학 영교인 것 같아요. 교육학도 말씀대로 자기가 공부해야 하는 거지.. 강사들.. 수업들.. 중요하다고 안 한 것도 보면서 주체적으로 공부할걸요.. 교수님,, 시험 후 그동안 1년 동안 해주셨던 말씀 결국은 다 맞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 좀 더 보충하는 게 답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2월 설명회 때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건강 조심하시구 2차 강의도 화이팅 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2. 시험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1-2월 파워리딩스킬스와 3-4 영미소설과 short prose reading을 수강한 학생입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원래 영어로 시험을 볼 생각이 없었는데 3월 즈음에 다시 임용고시에 뜻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생겨서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전 나름대로 공부를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김유석 교수님의 말씀대로 공부를 안 한 것이 아쉽습니다.) 남들이 하는 하루에 일반영어 3지문 풀고 써머리하는 스터디라든지, 영단어 스터디, 원서 문제 만들기 스터디 등등...영어학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Teacher's grammar, student grammar of English, An Introduction to Language, Linguistics of Non-Linguistics, AEP, 신알규, 트포, 카니(카니책은 발췌독했습니다) 이렇게 읽고 준비했습니다. (정말 여러 번 봤습니다, 강사들 문제은행이나 모고를 보면 어디 원서에서 그대로 있는 지문을 가져왔다 싶으면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거의 정확히 알 정도였거든요.) 영교는 PLLT TBP PELT를 위주와 인강 기본서 교재를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기입을 대비하여 키텀도 다 봤습니다.) 초수생이 이 많은 원서를 읽고 정리했다면 거짓말이라고 믿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임용 원서 책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부터 접해 와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미가 있었구요. 그러다 보니 '내 용학'에서는 자신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wh-movement같은 것은 강사 모고에 많이 나오니 안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원서의 ambiguity나 나올 법한 부분들을 틈틈이 보고 외웠습니다. 나름대로 예측하고 준비했습니다. (10월부터 지나친 적중에 대한 집착과 암기에 지나친 집착이 일을 그르친 것 같습니다.)

<시험 1교시>

사실 다 아는 것이 나왔습니다. 큰 어려움도 없었으나, 사실 교육학의 경우 많이 써본 적은 없고 개요식으로 대충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마인드여서 적당히 쓴 것 같았습니다. '기계문화'라는 것도 무난히 썼구요. 초수생치고는 교육학도 부지런히 해 와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험 2교시>

하.... 처음에 좀 당황했습니다. 김유석 교수님께서 늘 일반영어를 강조하셨는데, 전 사실 긴가민가했거든요. 작년 시험이 무난하였고 변별을 위해서 내용학을 상당히 어렵게 낼 줄 알았습니다. 근데 1번부터 사실 영교문제라고 되어있으나 일반영어처럼 접근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2번~4번 기입은 누구나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번부터 7번까지의 내용을 보니 좀 이상했습니다. 영교 1문제와 영어학 2문제입니다. 근데 영교문제도 보면 영교지식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어느 정도의 일반영어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느꼈냐면, 그간의 기출문제나 강사의 문제들을 풀었을 때는 상당히 예측이 많이 되었는데 이번 영교문제는 A지문의 내용이 5번의 경우 의미, 화용론적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7번의 경우도 A지문을 빨리 읽고 내용을 처리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6번은 가볍게 풀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8번부터 문제였습니다....하...ㅠㅠ 글이 이상하게 방향이 안 잡혔습니다. 대충 감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답도 알겠는데 '저의 말로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 뒤의 문제 총 8~12번까지 (물론 10번은 영교지만 영교이기 전에 일반영어(topic sentence)를 요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글을 보면 막 어렵다기 보다는 깔끔하게 쓰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8번이요..ㅠㅠ 참 후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내용학이 많이 나올 줄 알고 내용학에 대해서 11월에 엄청 많이 준비했습니다. 정말 같이 스터디하신 분들도 초수생에서 이 정도이신 분은 처음 본 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있었고, 오히려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적중을 바라고 공부를 한 것이죠...ㅠㅠ)

<시험 3교시>

근데 B형의 경우는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A형보다 시간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A형은 진짜 좀 땀 치자마자 딱 끝냈거든요...ㅠㅠ B형의 경우도 통사문제는....도록... 에라이하고 풀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neither flesh or fish였나요? 그냥 감으로 후려쳐서 비스무리하게 썼는데 이런 것도 아는 사람들은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참 아쉬웠습니다. 좀 그간의 기출 느낌과 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간의 기출문제와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좀 뭐랄까... 좀 조금 낯선 느낌? 그랬습니다. 못 풀 정도는 아닌데 시간 내에는 좀 빠듯한 느낌이었습니다.(아마 일영이 시간을 좀 요구를 많이 하게끔 구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입에 서술이 다 있다 보니) 내용학을 기본적인 수준으로 내고 모든 일반영어 문제에 빈칸과 서술형을 낸다는 것은 일반영어 실력에 비중을 두고 변별을 하겠다는 것으로 느껴졌거든요. 내용학 문제들을 보면 사실 읽기만 한다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라고 보니 사범대를 나올 필요가 없지 않나? 사범대에서 쌓은 전공지식은 그다지 중요치 않은 건가?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의 강의 말씀이 몇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Short Prose Reading에서 이디엄같은거나 혹은 PRS에서 단어 시험의 경우 교수님께서 여기 현강에 있는 사람들 피터쳐라 하는 것을 직접 느껴야 한다고 하시고 수강생들이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 하셨죠... 그러다가 내년엔 나랑 다시 만나서 외운다라고. 네. 그 수강생 접니다.ㅠㅠ(단어 겁나 안 외우고 말 드럽게 안 들었어요..그때는 몰랐는데ㅠ) 파워리딩스킬스 책 3판은 거의 뒷쪽은 클린하죠. 교수님이 자료 주신 소설 문제도 잘 안풀었어요 ㅠㅠ.. 교수님께서 소설 읽어오란 거 안 읽고 교수님이 설명하는 이야기 재밌어서 듣고....숏프리의 때의 이디엄책 아직 하얏습니다. 절반이 깨끗합니다. 너무 후회가 됩니다. 아쉽네요. 초수의 합격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진짜 잘 준비했다고 느꼈거든요...ㅠㅠ 공부가 즐거웠습니다. 영어를 읽고 배우는 것도 재미있고 원서도 재밌었거든요 ㅠㅠㅠ 내년엔 다시 도전합니다. 그때는 교수님 현강을 들으려고요. 합격설명회도 한번 가보려 합니다. 일반영어를 11월부터 좀 등한시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험에 크게 다가오니까 압박이 세게 왔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일반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현강을 강조하신 이유도 알겠습니다. 시험후기인데 뉘두리를 알아달라는 것 같네요ㅠㅠ (대부분의 응시생이 비슷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합격설명회 때에 찾아뵙게요!

3. 1년간의 수강후기+시험후기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석교수님 9월~10월 모의고사를 인강으로 듣고 11월 2주 동안은 직강으로 모의고사를 수강한 학생입니다. 저는 초수입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중고등 영어선생님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용고시를 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방에 살고 있어서 올해 초수로 합격하는 걸 목표로 작년부터 교육학 강의는 들어왔고 1월과 2월에 아무 정보도 몰랐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듣는 종합반 기본수업부터 들었습니다. 사람심리가 1월 2월을 듣다보니 불안해서 3월 4월도 종합반을 듣고 그렇게 1년 내내 종합반을 수강했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의 인강으로 듣고 7월부터 나머지는 노랑진에 올라와서 종합반 직강을 수강했습니다. 원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보는 원서강의도 거의 다 들었고 스스로 강사분들께서 안 해주신 부분도 꼼꼼하게 정독했습니다. 초수였지만 트포나 AEP는 10 번 이상 읽은 것 같고 영교도 어느 key term을 불러도 달달 외울수 있을 만큼 공부했습니다. 사실 이번시험이 초수였지만 운만 따라준다면 붙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9월쯤에 우연히 김유석 교수님 모의고사 문제를 보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큰일났다 싶었습니다. 일반영어에 별로 부족함을 못 느꼈었는데 교수님 문제를 풀면서 제 실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바로 인강을 신청해서 들었고 그때는 제가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1월 직강을 들을 때 교수님과 상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이때부터 공부 방향을 잘못잡고 시간만 채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어선생님은 당연히 영어로 먹고사는 직업인만큼 그 누구보다 영어를 잘 해야 하고, 외국에 오래 있다 온 학생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영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수박겉핥기식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임용고시시험에서 저는 영교 영어학은 무리없이 거의 다 맞췄는데 일반영어 기입 서술형을 거의 다 틀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나 이글을 읽으시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12월 20일에 있는 입시설명회에 가기 전까지 새로운 마음으로 수능 단어책을 사서 외우고 수능기출과 구문을 위주로 공부할 생각입니다. 올해 1년이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영어공부 하는 것이 재밌었고 영어공부 이외에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은 김유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준비된 당당한 선생님'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다시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4. 초수생같은 장수생의 시험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 해 1월부터 11월까지 김유석 선생님 직강 수업을 다닌 수강생입니다. 저는 올 해 시험을 처음 치른 초수생입니다. 작년 12월 7일 월비스 합격설명회 때 김유석 선생님 처음 뵈고 상담하고 싶어서 4층 연구실에 줄 서서 얼굴 뵈 게 었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나 지났어요. 올해는 20일에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초수생이신 분들은 꼭 가셔서 끝나고 김유석 선생님 얼굴 뵈고 상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때 나만큼 간절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제 정말 치열하게 시작이구나.. 하고 긴장했던 기억이 나요. 그 날 집에 돌아가서 당장 기출문제 풀어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왜 기출문제를 미리 풀기가 그렇게 아까웠는지(?) 말 안 듣고 나중에 5월에 해야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2월 말쯤인가 전화주셔서 문제 안 풀었다했더니 혼내셔서 그날 당장 풀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 왜 풀어보라고 하셨는지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제 고집을 버리고 김유석쌤 말을 들어야 겠다 다짐한 것 같아요!

1-2월 파워리딩스킬스, 영미시의 이해 수업 후기는 월비스 사이트에도 남겼었는데 정말 신세계였어요. 저는 학부 때도 영문학 수업을 제대로 안 들어서 시를 읽을 줄 몰랐었거든요.. 매 주마다 7-8개의 시를 다루는데 수업 끝나자마자 스터디원들과 복습하는 게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때는 뭔가를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ㅋㅋㅋ) 1,2월은 수업 예습하고 복습하고 단어외

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가서 워밍업(?) 수준으로도 벅찼던 기억이 나요. 파워리딩스킬 뒤에 실린 유의어, 파워리딩보카 단어 시험이 너무 살인적인 수준이어서... 그래도 이 때 아니면 유의어공부하기 힘들고 김유석샘 아니면 이렇게 강제로 하기 힘들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간대도 또 들을 것 같습니다~!

3-4월 영미소설의 이해, 쏫프로즈리더 수업은 1,2월에 비해서 훨씬 더 살인적이었어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단어량이 idiom에 소설단어, 쏫프로즈 단어만으로 이미 1,2월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저는 다른 건 뭐해야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김유석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어서 아침마다 시험 보는 idiom 열심히 외워갔었는데 막판에는 시험지 제출하시는 분들이 적어져서 6주차까지만 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작년에 pipe dream, 올해는 neither fish nor flesh 때문이라도 올해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떨어지면 다시 이디엄책 붙잡고 살 것 같아요 ㅎㅎ 소설이나 쏫프로즈에 나오는 단어들은 김유석샘이 매주 리스트 작성해주셔서 스터디원들과 단어 테스트보면서 외웠어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너무 많아서 3,4월에도 단어공부하느라 시간 엄청 썼던 기억이 나요. 특히 지문이 길어서 영미소설 쏫프로즈는 예습하고 복습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시간이 오래걸리는데, 여기에 사운드앤센스 인강 들으면서 복습스터디하고, 1,2월에 했던 파워리딩스킬스 서머리 스터디까지 해서 진짜 이때는 하루 종일 일영문학만 하면서 시간 보냈어요. 이렇게 일영문학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영교 영어학언제하지 걱정이 되는데도 일단 할 게 많아서 일영문학만 했었는데 유석샘 말 믿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올해 시험트렌드를 보면....

영미시와 마찬가지로 저는 영미소설도 단어를 다~~알고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수업을 듣고 나서야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하고 알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ㅎㅎ 쏫프로즈도 마찬가지로 내가 영문학과를 나온 게 부끄러울 정도로 무슨 말하는 건지 모르는 에세이들이 많아서 수업 때 열심히 받아 적고 스터디에서 열심히 패러프레이즈 연습하면서 3,4월에는 진짜 영어로 글쓰기 연습을 이 때 최고로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혼자서는 물론 어느 학원을 가도 이렇게까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4월 수업도 정말 뻘세지만 꼭꼭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수업으로 배우는 것도 엄청 많지만 쏟아지는 숙제량이... 정말 공부시켜주는 수업이었어요~!

5~6월에는 월든하고 기출변형모의고사 수업이었는데 단어량은 확 줄었지만 월든....월든이..... 5,6월부터는 아 이제 영교 영어학 좀 더 해야 겠다 맘먹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영문학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ㅋㅋㅋ 기출변형 모의고사 풀면서 음... 기출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네... 월든 예습복습하면서 한 지문 봤는데 시간 가는 거보고 충격 먹고.... 5,6월에는 1~4월 수업 듣고서 학원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저도 영교 영어학이 불안했지만 그럼에도 일영문학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건 유석샘이 제가 불안해할 때마다 해주신 말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들이 백번천번 옳았던 것 같아요..ㅋㅋㅋ 5,6월에 그동안 공부한 거 정리한다고 수업 안 들었으면 이도저도 못하고 시간 흘려보냈을 것 같아요. 수업 들으면서 3,4월 단어복습하고 사센 인강 마무리하고, 이디엄 복습 병행하면서 긴장 놓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7~8월 모의고사

7,8월에는 본격적으로 모의고사가 시작되는데.... 특히 7월에는 정말정말 많이 올랐어요. 저는 솔직히 1~6월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근데 전혀 아니었어요. ㅎㅎ 뼈를 맞다 못해 탈골될 정도로 제 실력을 확인하고 또 세상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네 하면서 엄청 좌절하는 시기였는데 그래도 이런 저를 다독여가면서 끌고가주신 김유석 샘 덕분에 11월 파이널까지 쭉 버틸 수 있었어요. 너무 신기했던 건 1,2월에 했던 GT, TS, CS 시에서는 또 문법, metaphor, 또 수필에서는 flow reading 등등 1~6월 과정에서 그렇게 했던 게 모의고사 풀면서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 이게 김유석 샘의 빅픽쳐구나 그래서 월별로 단계별로 했던 거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아주 조금씩 점수가 올라갔어요. 제가 잘맞는 지문이 많이 나오는 날에는 상위10퍼 안에도 들어보고, 약한 지문 나올 때는 다시 되보하는..ㅋㅋ 그런 기복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제가 못하는 유형을 파악하게 되면서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매주 시험문제를 다른 유형으로 구성해주셔서 아 이제 정복

했다 됐다 싶으면 또 점수 떨어지고.. 또 됐다싶으면 떨어지고.. 이 과정의 반복이었어요 정신이 너덜 너덜.... 이때는 모의고사 9문제를 일주일 내내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ㅎㅎ 또 같이 공부한 스터디생들이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라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ㅎㅎ 이걸 시험과 별개인 얘기지만 유석샘 수업들으면서 진짜 좋으신 샘들 많이 만나서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9~10월 모의고사 / 11월 파이널 모의고사

9-10월에는 종합반 모의고사를 들어야하지 않을까 불안했는데 유석샘이 누누히 말하시고 또 경험있으신 샘들이 조언을 해주셔서 종합반 모의고사는 풀지 않았어요. 저는 시험 때까지 교육학부터 전공 a,b형 풀로 시험쳐본 게 학원가 전국 모의고사 신청해서 총 3번본게 다였어요. 유석샘모의고사 끝나고 하는 스터디에서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풀려고 했지만 결국 미루고 미루다 안했는데 (ㅋㅋ) 정말 잘 한 선택인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는 새로 나오는 유형이 많아서 그리고 일영문학이 많았어서 종합반 모의고사를 시간 재가며 푸는게 의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따로 공부하면서 일영문학에 집중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11월 파이널끝나고 나서도 저는 영교 영어학 보다 그 동안 모의고사 풀면서 제가 1점 받은 문제들과 문학작품 다시 보면서 마무리 했었어요~!

<시험후기>

1교시 교육학에서 처음 보는 개념이 너무 많이 나와서 덜덜 떨면서 어찌어찌 마치고... 2,3교시 수업도 엄청 긴장된 상태에서 마치고 나서는.... 시험장 나오면서 유석샘한테 전화하며 진짜 말 그대로 엉엉 울면서 나왔어요. 저는 영교 -> 영어학 -> 일영,문학 이 순서로 푸는데 영교론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영문학 4문제인데 40분 남아서 속으로 큰일났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는 유석샘 모의고사를 풀면서 술하게 겪어왔던 것이기에 다독이면서 풀었어요. 일영문학만 말씀드리면 저는 풀면서 유석샘 모의고사 문제 유형이 막 떠올랐었어요. 하도 다양한 유형으로 내셔서 하도 다양하게 틀리느라 복습 죽어라하면서 기억나는 지문들이 꽤 많았었는데 내용보다도 문제를 푸는 그 형식이 익숙해져서 문제 풀면서 그렇게 당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11월까지 극복하지 못했던 제 약점들이 시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서술에서 많이 깎일 것 같지만 말 많고 탈 많은 기입문제에서 만큼은 열심히 복습한 게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시험 끝나고 울면서 나온건 확신을 가지고 답을 한 게 없어서 망했다는 생각에 눈물부터 났는데 채점해보니 기입형 맞은 걸 보고 유석샘이 모의고사를 통해 저를 훈련시켜놓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ㅋㅋ 사실 정확히 제 점수가 가늠이 안 되고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지만... 일단은 2차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떨어진다고 해도 초수인데 이정도 봤으면 적어도 내가 올 해 유석샘 믿고 공부한 게 틀리진 않았구나 확신할 수 있기에 유석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5. 초수생같은 장수생의 시험후기입니다~

보통 초수생같은 장수생이라고 하면 반응이 "나도 공부 안했다" "그렇게 치면 나도 초수생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정말....정말 시험만 보고 공부하는 척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끈기도 부족해서 한 달 공부하고 5개월 쉬고...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전공 점수가 계속 40점대였어요. 정확한 점수는 기억 안 나지만 총점이 50점 겨우 넘었습니다. 그나마 공부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올해 6월부터였습니다. 어떤 일을 계기로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출문제도 8월에 처음 풀어봤고 늦게 시작한 만큼 별 기대없이 '내년에 붙어야지'하는 생각으로 공부하다가 문제를 풀기 시작하고부터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구요. 내가 겁먹었던 것만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내년에 붙을 생각으로 공부하다간 갈수록 길어질 것 같아서 올해 붙는다고 생각하고 공부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시험 준비하는 동안 제일 중요한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없다보니 초반엔 예전에 한번쯤은 봤던 개념들 다시 따라잡기 바빴어요. binding

theory가 뭔지 기억이 아예 안나더라구요. 그렇게 내용학을 보면서 김유석교수님 모의고사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평균 나오는 점수였고 중간에 4~5점 정도 올랐는데 딱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썩으로 2주를 날렸습니다. 2주 동안 한 페이지도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영어에 대한 감도 다 떨어지고ㅠㅠ 힘들었습니다. 이 시험은 일반영어뿐만 아니라 내용학조차도 영어실력에 주된 초점을 맞춘 시험이다 보니 감을 잃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특히 일반영어는 정말 최소 한 시간씩이라도 매일 봐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스케줄이 있더라도! 꼭! 제가 단어도 엄청 약한 편인데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외우기를 포기하고 있다가 교수님 말씀 듣고 다시 md33000을 외우기 시작했고 정말 어이없게도 그 책에서 외운 단어가 한 두개씩 지문에 나타나더군요... 평생 볼 일 없는 단어뿐인 줄 알았는데 임고는 정말 단어싸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아서 결국 시험장에서는 모르는 단어 투성이었어요ㅠㅠ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이 쉬는 기간 동안, 그리고 내년 초반에는 단어와 숙어 외우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또 일반영어에서 consecutive words 제약이 원래는 많지 않았는데 이번엔 아주 범벅이더군요... 저는 사실 김유석교수님 모의고사밖에 푼 적이 없었어서 시험 중에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말해주서 알았어요ㅋㅋㅋ 일영 문학은 정말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면 전혀 문제 없었더라고요. 영교론은 늘 쉽게 나왔어서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해결이 되겠다 싶어서 정말 기본적인 개념만 익혔습니다. 기출은 6개년만 분석을 했고 기출빈도에 따라 공부를 했어서 teaching vocabulary에서 문제가 나올줄은...전혀 몰랐구요.. 그리고 영교 개념을 대충만 알면 큰일나겠구나 생각을 한 게 이번 시험 lexical modification을 써야하는 문제에서 approximation을 써버렸습니다. 영교론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해서 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학은 원래 좋아하는 편이고 늘 생각했던 게 어차피 원서를 읽더라도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내가 읽은 원서랑 다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했었기에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자료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읽고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싶어서 문제로 조금 연습했고 기본개념 이외의 것들은 깊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 방법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교육학은 양이 너무 방대한데다가 나오는 문제 수는 적어서 들이는 시간, 노력대비 아웃풋이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나 공부를 늦게 시작한 저는 매일 한 30분정도 원페이지 교육학으로 공부했고 기출이 제일 많이 된 교행경, 교육과정, 교방공, 교육평가, 그리고 작년에는 나오지 않았어서 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교육사회부분만 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도 그때 뿐이더라고요ㅠㅠ 휘발성이 너무 강한 과목이어서 시험 일주일 전에 커다란 용지에 나만 알아볼 수 있을 만큼만 키워드를 써놓고 위치로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고 암기는 거의 시험 전날 호텔에서 엄마한테 강의하는 식으로ㅋㅋㅋ 했던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 부분만 봐서 그 부분은 거의 다 암기를 했지만 적중률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외운 부분을 제하고는 상식적인 말 이곳저곳에서 따왔습니다. 이제는 교육학도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와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모의고사를 풀어본 적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키워드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말만 되게 쓰면 되는 거여서 직접 많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점수가 안 나와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겠죠)어쨌든 교육학은 그냥 하루에 조금씩 외우고 교육학의 모든 영역을 다 봐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어렵쑥한 추측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언어시험은 당일 컨디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전날 충분히 잠자고 당일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온갖 약을 다 챙겨갔어요. 화장실도 매 쉬는 시간마다 갔고 먹을 것도 딱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챙겨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체력이 진짜 똥이어서 체력을 조금이라도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체력이 있어야 아파도 며칠 썩으로 날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내년엔 6월까지 본가에서 공부를 하고 7월부터 직장 들으러 올라간다고 했더니 교수님께서 막 화 내시면서 초반에 올라와야한다고, 아니면 금요일 하루라도 직장 들으러 올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스터디하면서 단어도 외우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초반이 맞는 것 같아서 금요일에 서울 올라가서 자극받고 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일단 가채점결과 전공은 50점대 후반~60점대 초반 정도의 점수가 나온 것 같구요.. 점수가 나오면 막상 더 낮을 수도 있겠죠? 하하 하지만 뭐 김유석 교수님 말씀 따라 착실히 성실하게 다시 공부한다면 내년에는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절망스럽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교수님ㅠㅠㅠㅠㅠㅠㅠㅠ흑흑

6. 초수생같은 장수생의 시험후기입니다~

일단 저와 같은 실수를 그 누군가는 하질 않길 바라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8월까지 일을 했었구요 그리고 9월달부터 부랴부랴 김유석 교수님의 직강을 들으면 일영이 늘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노랑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9-11월 직강을 들으면서 느낀 생각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늦었다. 진짜 제 정신이 박혔으면 상반기 때 공부를 더 해서 기반을 다져놔야 했는데 사상누각이다 교수님이 주시는 피드백 꿀팁을 받는 데 제 실력이 안 되고 시간이 부족하고 이래저래 변명만 하는 저를 발견해서 입니다. 막연하게 교수님이 나의 성적을 올려주시겠지가 아니라 9-11월 강의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가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되고 그래도 애를 써보고 거기서 재미도 느껴보고 처음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의 노력한 시간이 아깝지 않았고 더 투자해야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이번 시험을 통해서 증명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시험지를 받고 소름 돋았던 것이 9-11월에 수없이 언급해주셨던 underlined part가 나오고 지칭하는 부분을 찾아서 paraphrase하는 연습을 해야 할 거라는 부분. 정말로 그렇게만 시험에 나왔구요, 시험 지문 길이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기입과 서술을 같이 나오는 문제 수없이 내주셨는데 증말... TT 제가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노랑진에 빨리 와서 교수님을 만났더라면 진짜 진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적어도 수능 단어 외우라고 해주셔서 power, fear 다 기입 썼고 서술형은 역시나 구문이 부족했기에 나쁜 습관처럼 제 맘대로 썼습니다. 그때 무릎을 쳤습니다. 준비가 안되면 결국 자기 하던대로 할 거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머리속을 멤돌았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해서 제 스스로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 시험은 힘들 거라는 말씀 다 맞고 저는 군말할 필요없이 20일날 찾아 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다 맞고 진짜 정신 차리고 말씀해주신 부분 공부해서 검사 말으려하겠습니다. 그 때 뵈요!

7. 1년간 교수님 강의를 듣고 수강후기 남깁니다.

저는 작년에 초수로 여러 영어과 정보들을 취합하여 가장 언급이 많이 되기도 하고 종합반으로 수업을 하는 곳에서 시험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험이 끝나고 일영문학이 너무 부족하다는 판단과 여러 합격수기들을 통해서 김유석 교수님의 강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탈락을 고배를 마시고 약간의 장래에 대한 방향과 어떻게 준비를 탄탄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여러가지 고민들만 하다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일영 문학에 중점을 두고 조금 더 열심히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 김유석 교수님의 1-2월 파워리딩스킬과 영미시의 이해를 신청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수업을 들었던 곳과 다르게 유석쌤의 문학수업은 정말 임용에 가장 적합한 수업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1-2월 영미시의 이해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런 식으로 시를 임용문제를 접근해야 하는구나...라고 느끼면서 어려웠던 시 해석에 대해서 약간 흥미를 느끼면서도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강조하신 부분들을 중심으로 복습할 땐 우선 한국어로 답을 작성하고 난 뒤 영어로 그 밑줄 쳐 주셨던 의미를 영어로 바꾸는 방식으로 복습을 했었습니다. 또한 1-2월 파워리딩스킬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아...일영 접근을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단락별로 중심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세세하게 글을 분석하는 방법과 교수님께서 내주시는 단어들을 외우기에도 일주일도 너무 벅찬단 것 같습니다. 뒤로 갈수록 양이 더 많아져서...하...언제 다 외우지하면서 구역구역 교수님 1-2월 강의를 완강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3월달부터 시작을 하여서 그런지...3-4월 강의를 건너뛰고 바로 5-6월 강의로 넘어갔었습니다. 3-4월 강의도 같이 들으라고 했었는데...뭔가 마음이 초조해져서 5-6월에는 기출 분석을 해야되...하면서 내용학 기출 분석도 같이 진행하는 바람에...교수님께서 수업했던 spr과 영미소설을 건너뛰고 그냥 기출을 들었습니다. 우선 기출문제는 제가 작년에 공부하면서 봤었던 지문들이었기도 해서...약간 생소한 느낌을 별로 못 들었던 것 같아요ㅠ그런데 기출유형1-3주차 강의는 정말 문제를 풀면서..아..내가 조금 더 늦장부리

지 말고 더 일찍 공부를 시작할걸...하면서 후회했던 것 같아요ㅠㅠ 그렇게 5-6월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 답을 어떤 방식으로 써야되는지..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서서히 체계를 잡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7-8월 강의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가 지방에 살고 있어서 인강으로 교수님 수업을 듣다가 7-11월 강의부터는 지방에서 통학을 하면서 교수님 실전문제들을 풀면서 좌절을 많이 하면서 1등 답안지와 내 답안지를 비교도 해보고 교수님 모의고사에서 상위 10%에 드는 학생들의 평균을 보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나도 언젠간..저 10%안에 들어야지...하면서 7-8월 직강을 통학으로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틀린 거 분석도 해보고 리라이팅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제가 단어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교수님 모의고사는 10% 안에 못 들었던 것 같아요...)또한 교수님이 채점을 해주신 것을 보면서..어..이 부분은 틀렸다고 생각했었는데...교수님은 맞았다고 해주셨네...하면서 다시 지문들을 분석해 가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외웠던 것 같아요^^하지만 3-4월 강의를 듣지를 않아서 시험 지문에 나오는 이디엄들과 소설지문들이 제 발목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이번 시험에서도 기입이랑 문학문제에서 이디엄들이 거의 정답 속에 나왔던 것 같아요...저는 이디엄 표현들 나온 건 다 틀린 거 같더라구요...ㅠㅠ 이번 시험에서 어김없이 일영문학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어서...만약에 이번 시험에서도 안 좋은 소식을 받게 된다면..내년에는 유석쌤 강의 1년 커리를 타서 꼭 교수님이 내주시는 과제들과 단어들을 열심히 갖고 닦아서 더 일영문학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올해 결과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올해 유석쌤 강의를 들으면서 항상 자극받으면서 후회없이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내년에 또 준비를 하게 된다면 무조건 교수님 수업 직강으로 1월부터 들을 예정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자극제가 되어주시고 좋은 자료들과 매번 새로운 모의고사 문제들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그리고 고맙습니다^^

8. 초수 시험후기 남깁니다~

교육학: 교육학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개념을 열심히 외웠지만, 아쉽게도 제가 외운 개념들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제가 외운 개념들을 바탕으로 교사의 마음으로, 장단점과 활용에 대해 더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공 A: 제가 제일 먼저 푼 문제는 8번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기입+서술형 유형이 제일 약하고 보면 긴장이 돼서 풀면서 '이정도 수준이라면 이번 교시는 4문제 정도 풀고 나오겠구나.. 망했다' 라고 생각하며 시험을 봤습니다. 7,8월부터 슬럼프 없이 공부했다면 이 유형을 계속 교수님 모의고사에서 실전에서 적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복습은 했지만 실전 연습을 못한 거 같아 많이 아쉬웠습니다. 뒷장에도 계속 일반영어가 많이 나와서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세네 번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교수님의 "시험장에선 그 느낌 그대로!" 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답안에 답을 바로 적었습니다. 10번 Topic sentence 쓰는 문제는 파워리딩스킬스 시간에 배운 "TS는 GT+CI다!" 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고민 없이 적었습니다. 영교 영어학 문제는, 원서는 단 한 권도 읽지 않고 기본서만 공부한 제가 풀 수 있었던 걸 보면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영교 영어는 열심히 하되, 기본만 하라고 하신 말씀 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공 B: 그 전 교시가 너무 어려워서, 무조건 한 번 더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긴장감이 없어서 B형은 A형보다는 쉽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 B형에는 문학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우선 소설은 모의고사에서 계속 연습 한 것처럼 text에서 근거를 끌어와서 서술했고, 시는 의인법에 대한 익숙한 코멘터리가 나와서 큰 어려움 없이 접근 할 수 있었습니다. 희곡 또한 모의고사문제처럼 기입 답은 지문 후반부에 위치해있고, 서술형은 처음 보는 지문을 그 때 그 때 이해하는 연습을 계속 해서 실제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 총평:

- 이번 시험을 통해 시험 상황에서 순간순간의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읽자마자 답이 뭔지 파악해야 했고, 막힘없이 영어를 쓰되 그 영어는 간결하면서 오류가 없어야 했습니다. 답안 밀려 쓸 뻔 하다가 다시 제대로 쓰고, need analysis라고 썼다가 's' 빠진 거 보고 바로 고치고...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시험이 완성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의 판단을 위해서는 결국 평소에도 계속 정확하게 알고 아웃풋하는 연습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 기본으로 돌아가서 수능공부부터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한국어 쓰듯이 영어 사용이 당연한 일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시험인걸 알았습니다.
- 내용학의 기본내용을 확실히 알고, 일반영어에 더 비중을 두는 전략이 옳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9. 초수 시험후기 및 반성글 써봅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김유석 선생님 1년 커리큘럼 전부 직강들은 학생입니다. 해당 시험 후기는 1. 실제 시험장의 느낌과 시험의 체감 난이도 및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2. 시기 별로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이 두 흔적을 남겨두고자 적습니다. 또한, 초수를 치고 난 지 얼마 안 된 지금, 제 나름대로 지금 갖게 된 생각,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내년 후반 즈음 흔들리고 다시 지쳐갈 때, 특히, 불안해서 여기 저기 휘둘리는 시즌이 될 때 다시 보기 위해 작성합니다.

▶ 교육학:

시험장에서 시험 보면서 특히 신경 쓴 부분

1. 쪽 번호 마킹 실수 하지 말고, 마킹해 놓은 거 1,2 순서대로 놓고 그대로 쓰기(모고 때 2페이지 표 시해놓은 거에 쓰기 시작하는 그런 실수를 한 번 실수했었음)
2. 문제에 써야할 것 번호로 체크 표시해서 빼먹지 말 것.
3. 디렉션이 길면 수식관계 파악해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내용을 써야하는지 정확하게 볼 것

실수한 부분

1. 제시문에 A학교의 교사들이 ~하다 라고 해서 교사를 개선시키려고 썼는데, 알고 보니, 문제 디렉션은 학교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 하는 거였습니다. 밖에선 하지 않을 실수를 시험장에선 반대로 파악하고 실수한 겁니다.
2. 약간 헛갈리면 일단 제쳐 두고 다른 것부터 건드려볼 만 했을 텐데, 자만이었는지 그냥 써버렸습니다.
3. 마지막 5분 남았을 때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리는 바람에 당황을 했습니다.
(시간 -12분으로, 48분 내에 연습해야겠습니다.)

▶ **전공 A:** 일단, 전공A 당시 상황 전제는 교육학 보고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며 2교시를 기다렸다는 점인데, 시험지보고 멘탈붕괴에 빠졌습니다. (멘탈이 괜찮은 상태에서도 멘붕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초수동안 사실 여러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1번 문제를 보고 '어? 봤던 거다, 근데 그 때 틀렸었고, 나는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하며 1번 문제 보면서 바로 느낀 건, '모고 많이 풀어봤자 기억 안나니 끝이네' 라는 생각과 함께 '공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 그러고 나서 바로 11번~12번으로 돌렸는데 일반영어문제였습니다.. 2차 멘붕이 왔습니다. 모고는 항상 영교론 문제였는데...

느낀점1: 1번 문제는 결국 또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답을 쓰고 틀렸습니다. 귀에 방패치고 쳐내고, 이렇게 까진 안나와 하면 그냥 나가리구나 (전영역 공통) 라고 느꼈습니다. 귀에 방패치지 맙시다. 멘탈 2차 붕괴 후, 2번을 봤는데, 대문자로 써야 돼? 소문자로 써야 돼? 일단 소문자로 쓰고, 불안을 갖고 계속 넘어가는데, 4번에서 palatal이 먼저 생각났고, 후에 affricate으로 바꿨습니다.

느낀점2: 시험장에서는 글이 잘 안 읽히고, 그날따라 유독 정신상태가 이상합니다. 그렇게 안볼 것도 시험장가면 그렇게 보입니다. 진짜, 정말, 한글이 아니라서 더 그래요.

A형 내용학 관련: 정말 별 거 아니게 쉽게 나왔는데, 이거는 시험장 밖에서 본 소감이고, 시험장에서 봤을 때는 초수입장에서는 다 새롭고 긴 어렵게만 느껴진 시험이었습니다.

느낀점3: 내용학이 실제로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꼈다는 건, 어차피 쉽게나오나 어렵게나오나 내용학은 비슷한 난이도로 느껴진다는 것이고, 일반영어를 잘해서 전반적인 체감난이도를 낮추는 게 결국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 **전공 B:** 개인적으로 A형은 내용학 / B형은 일반영어 이렇게 느낌이 나뉘었습니다. B형은 내용학도 A형에 비해 접근하기 쉬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즉 모고형 문제들이 많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형이 B형보다 인상이 깊게 남은 이유도 그런 이유고, 그래서 그런지 B형은 문학문제만 기억에 남습니다. 전 항상 문학문제를 어려워해서 이번에도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소설쓰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실력이 부족한 탓도 있고, 한글로 봐도 주인공이나 기타 인물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나랑 안 맞는 시험이다..싶기도 했습니다. 재수를 결심하고 있는 지금도, 문학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교육학점수가 높아서 그렇지, 사실상 전공은 기입형과 문학에서 '저세상 끝까지 털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체감 상으로 어렵다고 느껴도, 그래도 그 와중에 답은 다 찍었더라구요. 저는 공부 후반부부터 제 자신도 못믿어서 결국 시험장가서 '내 눈에 답이 이렇게 잘 보일리가 없어' 이러면서 이상하게 써서 진짜 기입형, 문학은 저세상 끝까지 털렸습니다. 사실 처음 답이라고 생각했던 거 다 그대로 썼으면... 컷에서 간당간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넘겼을 텐데..ㅠㅠ

▶ **전공공부에 대한 반성:** 내용학은 사실 학원커리큘럼 따라가기 바빴고, 요약노트도 다른사람이 만들어놓은 것에 이것저것 추가해서 외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이해했지만, 나울만한 것들 위주로 선별해서 공부했었고, 후반부로 갈수록 서브노트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내년엔 원서를 정리하면서 넓게 보고, 서술을 빨리하는 걸 목표로 잡고 표현 암기만 하고 일반영어 쪽에 더 힘을 실을 생각입니다. 김유석 교수님께서 전공은 얇고 넓게 보라는 말씀을 한 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 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내년엔 내용학은 정말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하고 빨리 쓰기 위해 표현암기만 빠삭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용학도 기본영어실력에 점수가 크게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일반영어:** 시험장에서 느낀 점: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확실히 시험장에서 체감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파트입니다. 어마무시합니다.. 문제스타일은 완전 김유석교수님 스타일이었고, 문제 디테일 역시 완전 교수님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귀에 방패치고 쳐내는 바람에 제대로 대비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ㅠ

▶ **비문학:** 일반영어는 실제 시험장가서 비문학에선 문장 단위로 밖에 못 읽고, 서술형도 전체 내용을 이해했다기보다 거의 지문에서 갖다가 썼습니다.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고 그 이유가 시험장에서 당황함+ 아직 체화가 안 되서 라고 지금 당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문학의 답은 맞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게 다른 영역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 **문학:** 내년에는 남들만큼만 할 수 있거나, 살짝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다른 영역에 신경쓰느라 거의 신경을 못 쓰고 갔는데(그래도 강의 안듣는 분들보다 많이 준비하고 갔는데..역시 제 실력이..ㅠ) 약한 만큼 내년엔 보충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읽는지 모델링하고, 문제마다 더 많이 생각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 **단어:** 사실 단어공부는.. 8월달부터 안했다고 보면 됩니다... 저도 무슨 자신감이었는진 모르지만 8월부터 안했습니다. 그 덕에 한 번 외웠던 haggle도 틀렸습니다. 단어 열심히 외우겠습니다ㅏ 반성합니다.

▶ 시험 총평:

- 일단, 시험장이란 특수 상황속에서 문제까지 풀려면 영어가 익숙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내용학은 기본 정도로 하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일반영어를 다 맞거나 사소한 감점 정도까지, 일반영어 다 맞으면, 내용학 좀 틀려도 된다. 다만 내용학에서 사소한 실수하면 일반영어 다 맞아도 점수보장은 어려울 수 있다..
- 고로, 일반영어 열심히 하자, 내용학은 기본에 충실하고, 모고는 골라 풀자.

글을 이해할 때 필요한 단어는 단어장으로 외우고, 라이팅 쓸 때 필요한 단어는 표현 그때그때 적어서 따로 만들자. 교수님 내년에도 직강에서 뵙겠습니다^^;;ㅠㅠ

1. 2020임용시험 변경안

2019학년도 임용시험까지 적용						2020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시험 과목 및 유형			문항수	배점 (모든 교과 동일)		시험 과목 및 유형			문항수	배점 (모든 교과 동일)		
교육학		1교시 (60분)	논 술 형	1문항	20점		교육학		1교시 (60분)	논 술 형	1문항	20점
전 공	전 공 A	2교시 (90분)	기 입 형	8문항	16점	40점	전 공 A	2교시 (90분)	기 입 형	4문항 (4문항 감소)	8점	40점
			서 술 형	6문항	24점				서 술 형	8문항 (2문항 추가)	32점	
	전 공 B	3교시 (90분)	서 술 형	5문항	20점	40점	전 공 B	3교시 (90분)	기 입 형	2문항	4점	추가
				2문항	10점							
			논 술 형	1문항	10점				삭제	서 술 형	9문항	36점
	소계			22문항	80점		소계			23문항	80점	
계(배점)			23문항	100점			계(배점)			24문항	100점	
기입형 8개 → 6개로 축소 서술형 13개 → 17개로 확대 논술형 10점 폐지						⇒	단순한 전공 지식 암기 축소 기본적인 전공지해를 바탕으로 한 ★지문이해력 ★디렉션 분석력					

2. 최근 5개년 공립중등임용시험 전공영어 모집인원

지 역 별 과 목	서울					경기					경기지제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영 어	42	42	51	38	43	127	80	64	39	57	5	5	7	9	3
	인천					강원					충북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9	9	7	13	7	21	14	16	8	18	31	16	14	5	6
	충남					충남지제					대전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1	7	14	22	16	4	3	2	2	2	9	3	2	2	2
	세종					경북					경남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9	30	6	13	9	13	-	-	2	19	28	13	21	19	11
	대구					울산					부산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10	18	7	4	2	-	-	-	1	3	6	4	6	15	18
	전북					전북지제					광주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16	12	12	31	23	1	3	1	-	-	5	2	2	2	1
	전남					전남지제					제주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8	24	18	22	12	1	1	1	1	-	3	2	9	3	4
	합계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389	288	260	238	256										

3. 최근 4개년 공립중등임용시험 전공영어 1차 합격선

※ 2020학년도 1차 합격선은 2019.12.30. 합격자 발표 후 김유석전공영어 다음카페나 네이버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합격선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서울	71.0	83.3	81.7	87.3
경기	65.7	82.0	80.7	82.0
인천	67.7	84.7	78.7	78.3
세종	68.0	83.7	81.3	83.0
부산	67.3	85.0	-	81.7
대전	66.7	83.3	82.7	77.3
대구	68.0	82.7	78.7	80.7
광주	68.7	81.0	81.7	82.7
울산	-	-	-	-
강원	62.0	80.7	79.7	78.3
충북	65.7	79.7	80.7	78.3
충남	65.0	83.0	79.3	81.7
경북	67.0	-	-	84.0
경남	67.7	81.7	81.3	80.7
전북	65.3	81.7	81.3	79.7
전남	66.3	80.7	78.7	79.3
제주	68.3	84.7	78.7	76.7

4. 일반영어 / 영미문학의 중요성

중등임용고사 “전공영어” 합격공식

전공영어 = 영미문학 + 영어교육론 + 영어학
합격공식

일반영어

(지문분석, 디렉션이해, 정확한 답안작성)

오히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일반영어 강의를 듣는다!

김유석교수님의 일반영어 강의는
단순히 해석해주고 단어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분석하고 논리력을 키워준다.

[초수들의 일반영어에 대한 착각]

“초수생의 경우 일반영어는
자기 혼자서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한다.”

“하반기가 되거나 시험을
치르고서야 김유석 교수님이
말하는 독해와 라이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혼자 생각없이 읽고 단어외우고
스터디하면서 혼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장수생이 된다.”

김유석교수님의 일반영어강의는

영어교육론, 영어학, 영미문학의 지문분석
그리고 디렉션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결국 지문을 바탕으로 한 답안을 쓸
때,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는 임용시험은 단순한 해석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수능언어능력과 같은
논리적 문제가 출제된다.

가이드 없이 써머리해보는거, 그런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바꿔써보고, 분석하는 능력이
곧 임용의 일반영어실력이다.

2008학년도(서울/인천) 20번 영미시
William Wordsworth의 "She dwelt among the untrodden ways"
[Sound & Sense 영미시 특강] 3강

적중

2009학년도 1차 37번 영미시
William Shakespeare의 "My mistress' eyes are nothing like the sun"
[Sound & Sense 영미시 특강] 2강

적중

2012학년도 중등영문 1차시험
37. Read <A> and and answer the question.

김유석 2011학년도 7-8월 모의고사 3회
10.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

< A >

Every morning I lay on the floor in the front parlor watching her door. The blind was pulled down within an inch of the sash so that I could not be seen. In the classroom her image came between me and the page I strove to read, and yet her name was like a summons to all my foolish blood.

On Saturday evenings when my aunt went marketing I had to go to carry some of the parcels. We walked through the flaring streets, jostled by drunken men and bargaining women, the shrill litanies of shopboys, and the nasal chanting of street singers. These noises converged in a single sensation of life for me. I imagined that I bore my chalice safely through the throng of foes. Her name sprang to my lips at moments in strange prayers and praises which I myself did not understand. My eyes were often full of tears and at times a flood from my heart seemed to pour itself out into my bosom. I did not know whether I would ever speak to her or not or, if I spoke to her, how I could tell her of my confused adoration. But my body was like a harp and her words were like fingers running upon the wires.

One evening I went into the back drawing-room. It was a dark rainy evening and there was no sound in the house. Through one of the broken panes I heard the rain impinge upon the earth, the fine incessant needles of water playing in the sodden beds. Some distant lighted window gleamed below me. I was thankful that I could see so little. All my senses seemed to desire to veil themselves and, feeling that I was about to slip from them, I pressed the palms of my hands together until they trembled, murmuring: *O love! O love!* many times.

< A >

Every morning I lay on the floor in the front parlor watching her door. The blind was pulled down within an inch of the sash so that I could not be seen. When she came out on the doorstep my heart leaped. I ran to the hall, seized my books and followed her. I kept the brown figure always in my eye and, when we came near the point at which our ways diverged, I quickened my pace and passed her. This happened morning after morning. I had never spoken to her, except for a few casual words, and yet her name was like a summons to all my foolish blood.

On Saturday evenings when my aunt went marketing I had to go to carry some of the parcels. We walked through the flaring streets, jostled by drunken men and bargaining women, the shrill litanies of shopboys, and the nasal chanting of street singers. These noises converged in a single sensation of life for me. I imagined that I bore my chalice safely through the throng of foes. Her name sprang to my lips at moments in strange prayers and praises which I myself did not understand. My eyes were often full of tears and at times a flood from my heart seemed to pour itself out into my bosom. I did not know whether I would ever speak to her or not or, if I spoke to her, how I could tell her of my confused adoration. But my body was like a harp and her words were like fingers running upon the wires.

적중

< B >

narration	interior monologue	a soliloquy or a confession of "I's love for "her"
protagonist	the narrator	a shy schoolboy
figurative expression	(1)	"I's love for "her"

- Which of the following best shows symbol of "Her image" from the passage?

- ① romance
- ② pig's cheeks
- ③ my chalice
- ④ my confused adoration
- ⑤ a harp

-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most appropriate for (1) in ?

- ① the front parlor
- ② the flaring streets
- ③ the shrill litanies of shopboys
- ④ my chalice
- ⑤ the broken panes

2012학년도 1차 38번 영미소설
Charlotte Perkins Gilman의 "The Yellow Wallpaper"
2010학년도 3-4월 영미소설특강 5주차 강의

적중

2013학년도 2차 2번 영미시
David Herbert Lawrence의 "Snake"
[영미문학 1-2월 기본강의] 교재 영미문학개론(김유석저, 경문사, pp.238-246)

적중

36. Read the <A> and and answer the question. [1.5 points]

< A >

Natasha : Excuse me, but the elevator is out of order.
Sharon : Really? Whom should we talk to?
Natasha : Talk to?
Sharon : To report it.
Natasha : I have no idea.
Sharon : Oh, I'm sorry, I thought you lived here too.
Natasha :

< B >

Culture Note

Sharon, who is American, can't imagine that someone who lives in a high-rise apartment doesn't know to whom a broken elevator should be reported. But you would only know that, of course, if you were in the habit of reporting such things, which her Russian neighbor Natasha clearly is not. In her world, elevators break down from time to time, and in due course they are fixed. Meanwhile, one walks.

By and large, Americans are doers. Their first impulse, when confronted with a problem or obstacle of some sort, is to act—either to change themselves or to fight a fire under something else. They respond in this way because they believe that doing something can make a difference. They are an activist culture. Natasha lives in a different universe; she believes that the individual is limited in what he or she can do, that many obstacles are truly insurmountable, and there is, therefore, no point in doing something when elevators break down. When such a person confronts a broken elevator, her first impulse may very well be to just wait and see what happens next. The goal is to endure.

- Considering the culture note in , which of the following would best fit in the blank in <A>?

- ① But I do.
- ② Let's call the management.
- ③ Sorry, it's my fault.
- ④ We have to report this.
- ⑤ That's OK. I'll report it tomorrow.

2009학년도 중등임용 2차시험

4. Read the statement below and follow the directions. [20 points]

Some people believe that **homework**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learning which facilitates further understanding; others think that homework is largely ineffective as a learning aid and may actually diminish a student's interest in learning.

Which view do you agree with? Take a position and defend it. Be sure to follow the guidelines below.

< guideline >

- Write one paragraph, composed of approximately 200 words (20 lines).
- Include a thesis statement and a concluding sentence.
- Use two specific reasons to support your position.
- Explain your reasons as persuasively and convincingly as possible.

9. Read the dialogue <A> and its culture note and follow the directions. [1.5 points]

< A >

Natasha : Excuse me, but the elevator is out of order.
Shelly : Really? Whom should we talk to?
Natasha : Talk to?
Shelly : To report it.
Natasha : (a) _____
Shelly : Oh, I'm sorry, _____ (b) _____
Natasha : But I do.

< B >

Culture Note

Shelly can't imagine that someone who lives in a high-rise apartment doesn't know to whom a broken elevator should be reported. But you would only know that, of course, if you were in the habit of reporting such things, which Natasha clearly is not. By and large, Americans are doers. Their first impulse, when confronted with a problem is to act. Americans respond in this way since they believe that doing something can make a difference. They are an activist culture. Russians live in a different universe. Natasha lives in a different universe. Natasha believes that the individual is limited in what he or she can do, that many obstacles are truly insurmountable, and there is, therefore, no point in doing something when elevators break down. When such a person confronts a broken elevator, her first impulse may very well be to nothing, to just wait and see what happens next. This resignation or fatalism, which should not be confused with passivity, probably derives in part from the physical hardships of life in Russia. The goal is to endure. Her immediate instinct is not to act but to cope.

- Considering the culture note, which of the following would best fit in the blank in <A>?

- | (a) | (b) |
|---------------------------------------|--|
| ① I don't live here. | I thought you lived here too. |
| ② Report what? | I thought you knew whom we should talk to. |
| ③ You're talking to the wrong person. | I thought you knew whom we should report it to at? |
| ④ I have no idea. | I thought you lived here too. |
| ⑤ Come again? | I thought you understood me. |

2차 대비 전공논술 3주차 교과내용략 18번

18. Read the statement below and follow the directions. [20 points]

It seems a lot of teachers in school assign **homework** to students on a daily basis.

Do you think that daily homework is necessary for students? Be sure to follow the guidelines below.

< guideline >

- Write one paragraph, composed of approximately 200 words (20 lines).
- Include a thesis statement and a concluding sentence.
- Use two specific reasons to support your position.
- Explain your reasons as persuasively and convincingly as possible.

적중 감사문자

1. "선생님 덕분에 두 문제에서 시간 벌었어요~ 감사하니당!"
2. "미뤄놔던 소설문제를 푸는데 작년 3-4월에 수업시간에 다뤘던 작품이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3. 안녕하세요. 김유석 교수님~~ 작년에 3월-10월까지 교수님 강의를 들었던 000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이번 시험에서 전공B 풀 때 막판 10분 남겨놓고 길어서 뒤로 미뤄놔던 소설문제를 푸는데 작년 3-4월에 수업시간에 다뤘던 작품이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는 작품이란 걸 아는 순간, 아이러니 부분을 너무 쉽게 찾았고 5분 남았다는 방송을 들을 때 나머지부분에 대한 답안을 잘 정리해서 써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돋고 신기해요. 아, 그리고 시문제도 작년 모고 때 다뤄주셨던 작품이라 낯익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잘 써냈습니다??
4. "샘!!!! 샘이 가르쳐주신 시랑 소설 다 나왔어요. 대박!!!!!"
5. 임용고시에서 작년에 선생님 강의로 공부했던 "After Twenty Years"와 "Promise me no Promises"가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풀었습니다."
6. 김유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려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임용고시에서 작년에 선생님 강의로 공부했던 "After Twenty Years"와 "promise me no promises..."가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풀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 덕에 뇌리에 아직도 남아있었어요. 또한 선생님 명강의를 들은 제가 기특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ㅎㅎ 감사드립니다.
7. "진짜 교수님은 선견지명의 신이세여" 교수님 Jimmy 와 Bob이 situational irony랑 엮어 나오다니.. 진짜 교수님은 선견지명의 신이세여♥♥ 감사합니다.♥♥ "
8. "재작년문제 풀었는데 문제빈칸이랑 밑줄까지 똑같았어요" 교수님~~~ 7~8월 수업 들었던 학생입니다. 올해 초에 교수님 재작년문제 풀었는데 문제빈칸이랑 밑줄까지 똑같았어요. affective filter가 낮아지면서 안심이 ㅎㅎ dramatic irony도 모고에서 다뤄 주셨었고! ㅎㅎ 1년 동안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아 promise나오는 시문제요! ㅎㅎ"
9. "교수님! 문학 같이 했던 거 나와서 완전 신나서 답 썼어요." "교수님! 문학 같이 했던 거 나와서 완전 신나서 답썼어요. 시험 끝나고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10. "와~~ 유석쌤!! 2문제나 적중하셨네요." 사랑 약속하지 말고 자유롭게 삽시다. 그 시랑 친구가 시카고범죄자 된 거 나왔어요~"

Power Reading Skills 수강후기

**파워리딩스킬스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도움 되었던 점은,
'당연한 것'을 체계적으로 배운 것입니다.**

지문을 독해하며 당연히 여겨왔던 문장간의 연결 관계를 수형도를 그리며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지문의 general topic을 시작으로 main idea 쓰는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배우며 저의 일반영어 실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교재의 모든 지문이 기출로 구성되고, 난이도가 골고루 배치돼 매번 풀 때마다 main idea 및 지문의 논리적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즉, 단순히 해석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구조, key word, main idea 등을 연습하면서 영어실력은 물론 사고를 확장하는 연습까지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석 교수님 강의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 3가지

첫째, 논리력을 키워주는 강의라는 점

어떻게 하면 논리력을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듣게 된 강의이고, 그 해답을 이 강의에서 찾았습니다. 단순히 읽고 해석하고, 문제 푸는데 급급했던 과거의 저를 반성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독해는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의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비록 지문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답을 유추해낼 수 있는 논리력을 키우도록 공부시켜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생각하게 만드는 강의라는 점

저는 부끄럽지만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귀찮아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 제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문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분석하며 왜 이것이 답인지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업이 진행되다보니 수강생들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도와주십니다.

셋째, 공부하도록 만드는 강의라는 점

교수님께서 단어시험을 매주 보고 채점 후 이것을 기록해서 직장생들을 케어해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단어암기를 귀찮아서 등한시하던 저도 강의 덕분에 단어를 더 암기하려고 노력합니다. 단어를 100프로 외우진 않지만요..ㅠㅠ 또한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끊임없는 명언과 꿀팁들을 말씀해주셔서 매주 강의를 듣다보면 메모장이 꽉 찹니다. 받아 적으면서 많이 공감도 하고, 미처 몰랐던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게 수강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수험생활을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왜 더 일찍 수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후회보단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들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잘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 매주 좋은 강의 감사드려요.)

이 패인을 알고, 돌고 돌아서 접한 강의가 김유석쌤의 파워리딩스킬스입니다.

지금 현재 1~2월 김유석쌤 파워리딩스킬스 수강 중인 임고생입니다! 제게 임용 불합격의 가장 큰 패인은 일영이었습니다. 일영이란 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저는, 첫 도전 때 일영 공부를 하반기 끝자락으로 미뤘습니다. 안일하게 기입형은 커멘터리나 지문 읽고서 낱 단어, 키워드 같은 단어 있으면 막 적고, 서술형은 만약 밑줄 친 단어들의 의미를 적는다 하면 밑줄 앞뒤로 내용 아무거나 갖다가 적으면 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다 다들까, 일영에서 가장 많이 깎였습니다. 이 패인을 알고 돌고 돌아서 접한 강의가 김유석 쌤의 파워리딩스킬스입니다. 일반영어 강의를 들어야 하나? 내 스스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혼자서 생각한 것이 잘못되거나 본문에서 핀트가 어긋날 때가 많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 중, 김유석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키워드, GT, CS!!!" "지문에서의 행간 문장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게 아니다." "행간 흐름(flow)와 논리(logic)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어로 생각한 답을 영어로 영작해봐라"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반신반의 했습니다. 하지만, 재도전 해보니 이 말들이 전부 맞구나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기존에 제가 일영 공부하던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파워리딩스킬스 강의는 제 이전 공부 방식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바꾼 제 일영 공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문 하나를 보더라도 꼼꼼히 자세히 보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2. 매주 주는 단어 과제를 통해 단순 뜻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활용해 문장에서 어떤 단어로 쓰이는 게 적절한지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3. 기출로 염선된 지문들의 구조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4. 지문을 접할 때, 행간과 지문간의 흐름(flow)와 왜 이런 단어나 문장이 쓰였지? 글의 논리(logic)을 따져라!
5.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로 페러프레이징 된 짝(같은 편)들을 찾아라!
6. 문제에 대한 답 도출을 어디서 끌어서 했는지 찾아라!
7. 문제에 대한 답을 우선 한국어로 적어보고 그것을 영어로 바꾸는 OUTPUT연습을 해라!

물론, 이러한 공부 방식으로 했을 때, 한 지문을 보는 데에도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만큼 4점 온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서술형이 더더욱 중시 되서 이런 꼼꼼하게 지문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임용합격의 필수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임용 합격을 하여, 파워리딩스킬스 강의를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나중에 제 제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적용 시켜 준다면, 난이도에 상관없이 어떠한 영어 지문에 관해서 가르치면 효율적이고 제자들에게 영어라는 과목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언컨대, 이 강의는 제가 장차 영어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영 실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1~2월 파워리딩스킬스 강의는 독해와 해석이 다르다는 걸 알려주는 강의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독해력을 길러야 할지 몰라 그저 다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해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납득이 가는 방식"으로 알려주는 강의입니다. 제 경험상, 다독을 권하는 사람이 다수였고, 이 독해 방법을 가르쳐주는 강사도 있었으나, 그 방식이 '실전에 적용가능한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이전까지는 '그렇다'라고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추천도 해주기 힘들었어요. 근데, 김유석 선생님 수업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추천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추천도 했고요! 독해방법을 가르쳐주시는 것에 있어서, 납득이 가는 것 (그래서 신뢰가 생기는 것) 외에도 또 사실 김유석 선생님의 에너지 자체가 워낙 좋아서 더 생겨요. 그러니까, 수업이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게 되고, 수업 가는 날이 기분이 좋고 수업시간도 엄청 빨리 가고, 제가 중학교 때 만났던 학원 원장님 덕분에 공부를 시작했

데, 그때 들었던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교재 자체가 구성이 좋아요. 겉으로 나눠져 있는 지문 유형 외에도, 자세히 보면 스스로 디테일하게 지문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 유형들만 모아서 편집하신 것 같고요. 누군가에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라면, 영어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들어야하는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요.

파워리딩스킬스는 군더더기 없는 내용으로 논리 독해에 필요한 액기스만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책의 구성은 챕터별로 General Topic, Topic Sentence, Supporting Sentence, Paraphrasing, Main Idea 등등 논리적인 독해를 위해 꼭 필요한 개념들을 소개하고, 이 개념들을 지문에서 어떻게 독해 해야하는지 연습할 수 있는 practice 문제와 practice 후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exercise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록된 지문들은 대부분 임고 기출지문으로 실전과의 연계성 때문에 풀 때도 열심히 풀게되고 정말 좋은 연습이 됩니다. 개념도 친절히 설명되어있고 해설에 답과 해석이 나와 있어서 혼자 공부하기에도 무리가 없고, 강의와 함께 들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논리력이 한번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니 다시 보면 볼수록 좋은 책이에요. 저는 처음에 Power Reading Skills 구입해서 강의 들으면서 1회독 + 필기한 후, 한 권 더 사서 배웠던 개념을 적용해 새롭게 풀고 있습니다. 애초에 노트에 풀고 깨끗한 책으로 몇 회독 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영을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감이 잘 안 잡히고, 지문을 읽을때 논리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푸시는 분들께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김유석 선생님! 파워리딩스킬 강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를 만나, 올해 일반영어 학습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은 교수님의 영미시 강의를 통해 교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교수님의 시 강의를 들으면서, 12월달에 진행할 예정이던 합격 설명회에 꼭 참여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교수님과 면담할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느낍니다. 그 후, 저는 직강에 등록하게 되었고, 매주 파워리딩 스킬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며 일반영어 공부 방법을 잡게 된 것 같습니다. "명언이다!" 라고 말씀해주신 것들을 따로 적어 모아 보기도 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입체적 글 읽기를 적용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전처럼 평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한 줄 한 줄 읽고 넘겼던 습관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충분히 그 과정을 따라갔다 생각했는데, GT를 못찾거나, 분명 기출 지문인데 해석을 못 하겠는 경우에는 많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부족했다고 느껴 몇번이고 반복하며, 암기를 하지 말되 글을 다른 각도로 보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믿고 시도했습니다. 최근에 지문을 3번째 풀 때에, 전보다 더 쉽고 확실하게 GT를 찾았고, 구조가 좀더 보이는게 느껴져서 뿌듯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느려도 언젠가는 할 수 있겠구나, 당장은 안 보여도 글의 구조가 보이는 때가 오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인강보다 김유석 선생님의 현강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일주일 간 나태해진 나에게서 금요일은 다시 나를 잡는 요일이었습니다.인 남은 2월간 파워리딩스킬을 한 번 더 처음부터 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교수님과의 상담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하루 준비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프로페셔널 해야한다고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내일 하루도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시의 이해 수강후기

영미시를 읽어주는 수업이 아니라 읽게 해주는 수업이에요.

1. 시를 읽어주는 수업이 아니라 읽게 해주는 수업이에요.

: 첫 시간에 시작하자 하신 말씀이 "시는 문법이다" 였어요. 수업 듣기 전에는 시를 딱 처음 보면 "도 대체 뭔 말이야?"부터 나왔었는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부터는 영미시의 어순이 왜 이렇게 바뀌어 있는지 강세와 라임 때문이란 걸 이해하게 되면서 주어가 어디 있고 목적어가 어디 있고 문장구조를 짜맞추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조금씩 시가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도 이런 내용이었구나~ 까지는 할 수 있게 돼요!

2. 시를 해석하는 수업이 아니라 독해하는 수업이에요.

: 선생님께서 "시를 해석하려 하지마라"하고 자주 말씀하세요. 수업을 듣기 전에는 시를 보면 자꾸 무슨 말하는 건지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해설 먼저 찾게 되고 그랬는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부터는 처음 보는 시도 거부감이 사라져요! 쌤이 또 자주 하시는 말이 "다~~~~ 같은 말이다. 새로운 건 없다" 에요. 그래서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때 +인지 -인지 따져가면서 같은 편인 것끼리 찾아가면서 읽다보면 시가 조금씩 읽혀져요! 수업 때도 선생님께서 시를 일일이 해석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하는 건지, 그 근거가 뭔지 독해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3. 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닌 임용 포인트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에요.

: 디렉션이나 코멘터리에서 주어지는 걸로만 문제를 풀어야하기 때문에 쌤은 "지식자랑하는 수업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시인이나 시의 배경지식은 간단하게 언급만 해주시고 적지도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시가 뭐에 대한 건지 다 설명해주시고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첫 행부터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일단 한번 계속 보자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생각하면서 읽어라~"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읽어 나갈지 수험생의 입장에서 설명해주시고, 또 "시험에 나오면 이것 밖에 나올 게 없다" 라고 하시면서 딱 출제자의 입장에서 뭐가 나올지 설명해주세요! metaphor, paradox, irony 등등 출제될 만한 요소와 theme에 관한 문제를 만들어주셔서 숙제로 내주시고 그 다음 시간에 모범답안을 주셔서, 임용시험 스타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영어로 된 시를 읽는 법을 이 수업 와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1. 영문학 전공자가 아니지만, 영문학수업을 그래도 몇 개 들었어요. 5~6개정도 1~2학년 때. 이때 아니면 언제 들어보냐 하고 기타 학점으로 빠질 거 알면서도 들었었는데, 일단 충격은 영어로 된 시를 읽는 법을 김유석 교수님 수업에서 처음 알았다는 거죠. (학교교수님들은 학생들이 다 알 거라 생각해서 안 알려주시고 하셨나봐요) 문법상으로 재배열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는 교수님이 없으셨으니가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인생에 있어서 큰 수확이 아닌가 싶습니다.

2. 시의 배경이나 작가설명 듣고 넘기고, 같이 읽으면서 분석법을 알려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문학공부 할 때도 그랬지만, 항상 배경이나 작가는 날렸거든요. 시험에 그런 거 안 나오니까요. 시험장가서 배경, 작가 이런 거 안 물어본다는 점에서 이 수업이야말로 진정한 시험대비 수

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시간 내내 배경, 작가 설명하면서 시간가는 일 없이, 시험장처럼 분석하고 끝내는 심플함, 거기에 고3 때 언어영역 시문학에 적용하던 분석법을 영미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니, 행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1년, 정해진 느낌으로 시험을 준비한다기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비하기 위한 실력과 내공을 쌓는다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유석 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올해 김유석 쌤의 영미시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1. 영미시를 해석할 때, 문장구조를 어떻게 분리하여 해석해야하는지 꼼꼼하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영미시를 공부할 때, 영미시의 번역을 받아 적고, 외우기에 급급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혼자서 복잡한 영미시 구문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2. 영미시를 단순히 번역해주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에 적합한 단어의 의미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영미시를 해석할 때, 어떤 관점에서 시에 적합한 단어의 의미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지 가르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의 주제를 파악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시의 주제를 생각하는 게 항상 너무 어려웠는데, 영미시도 일반영어처럼 key word를 통한 main idea를 찾게 해주셔서 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3. 영미시에서 임용고시에 나올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전에 영미시를 번역에만 초점을 두고 공부할 때 시의 주제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웠고 임용고시의 시 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임용고시에 나올 부분을 집어주셔서 임용고시 공부에 맞는 사고들을 하게 도와줍니다. 영미시의 이해를 듣다보니 파워리딩스 스킬스 강의를 꼭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 기대합니다.

내가 찾던 문학 강의 <영미시의 이해>

김유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 초수 학생이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서 수강후기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을 길게 하는 편이라... 좀 길어지겠지만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라도 선생님 만난 게 무지 감사하거든요^^

선생님의 말씀처럼, 글을 읽을 때 그리고 문제를 풀 때에는, 당연한 걸 생각해야 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챙겨야 하는데 그동안 저는 자꾸 헛것을 찾고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강의를 들으며 "이건 영어의 문제도 아니고 국어의 문제도 아니고, 상상력의 문제야!"라는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우선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바로 아래 단락을 읽으시면 "수강후기 쓴다더니 웬 국어강사 얘기야?" 하시겠지만, 그만큼 김유석 선생님이 제가 찾던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첫 수능 준비에 실패하고, 재수를 시작했을 때 자만심을 버리고 인강부터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인 제가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다름 아닌 국어였고, 문학과 비문학 가릴 것 없이 다 어려웠습니다. 3년 내내 자습시간의 8할은 국어에 투자했으나 결국 수능날 처음과 같은 등급이 나왔습니다. 돌아보니 상식도 부족하고 책도 한권 읽지 않는 내가 뭘 믿고 혼자 공부를 했나? 싶었습니다. 이전에는 "국어에 무슨 인강이야?"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재수를 시작하자마자 글의 원리를 파고드는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특히 비문학 글을 읽는 원리를 가르쳐주셨는데, "글

읽는데 이런 원리가 쓰여? 이런 개념이 있어?” 할 만큼 낮은 용어들이지만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유석 선생님의 문학 강의를 들으니 또 문학의 신세계를 맛보는 느낌이에요) 그 국어 선생님께서도 가르치는 내용도 좋고, 기술도 좋으시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복습”을 너무나도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김유석 선생님의 강의와 비슷한 점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고 복습을 하도록 과제를 내주셨어요. 매주 인강을 듣고 나서 복습을 하게 되니까 직장 들으면서 관리를 받는 기분이었습시다 (지방 사람이라 한 번도 학원 직장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요). 자세한 과정은 생략하겠지만 결국 이 한번의 인강을 (2달간 하루 2시간 인강 듣고 3시간 복습) 듣고, 11월까지 남은 기간은 그때 배운 원리를 기출문제에 적용하며 무한 반복하였습니다. 독학으로 했지만 인강 때 들은 내용이 없었다면 제 1등급은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무쪼록 수능의 관문을 넘어 입학한 사범대에서 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특히 임고생 때는 남들보다 열심히, 더 많이 공부하고 있다며 자부하며 보낸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재수를 하게 되었고, 수능 재수와 마찬가지로 다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땐 국어가 부족했다면, 지금은 전공 중에서도 문학... 정말 초수 때는 공부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문학은 일반영어인 줄 알았고 문학개념을 알면 뭐하냐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문학개념을 몰라도 된다는 말에 속아 또 한번 글 읽는 기술을 놓쳤습니다. 심지어 초수 때는 인터넷 강의 하나 없이 오로지 혼자 공부했습니다. 스터디에서도 문학을 다룬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인강에 전혀 관심이 없고 알아본 적조차 없었기에... 시험을 치르고 나와 두 작품 모두 김유석 선생님 자료에서 적중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선생님 성함을 처음 들어본 때입니다. 그 정도로 문학에 관심이 없던 제가, 인터넷 강의를 듣고자 며칠을 검색만 했죠. 관심 갖고 찾아봐도 샘플 강의가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임고 카페를 몇 며칠 돌아다니며 정보를 찾았습니다. 작년에 모아둔 알바비도 다 썼고 부모님 카드로 강의를 결제해야 할 판이니.. 괜히 죄송스런 마음에 정말 “액기스 같은” “나한테 꼬오오욱 필요한” 강의만 찾자는 마음으로 절실히 찾았어요. 강의를 결정하는 데 1주일 넘게 걸린 것 같네요. 타 강사와 비교하며 답변을 달아준 얼굴 모를 임고 선배들 덕분에 임고야 홈페이지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지금도 강의를 듣고 있지만, 후기를 쓰며 다시 생각해보니 그분들께 참 감사하네요. 수많은 광고성 댓글들을 걸러내는 능력이 탁월했던 저에게도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 강사분을 찾을 때는, 수능 재수 때 만난 국어선생님 같은 분을 못 찾을 줄 알았습니다. 수능은 판이 넓지만, 임용은 판이 좁으니까요. 응시자가 훨씬 적은만큼 강사분들도 훨씬 적을 테고 그 중에서

- 1) 글을 읽어내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 2) 복습을 말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과제까지 내주시는 분

그런 분을 진짜 못 찾을 줄 알았어요. 임고야 홈페이지 들어와서 샘플 강의가 있는 걸 보고, 와 진짜 내가 벌써 몇 개 사이트를 돌아다녔는데 샘플 강의 하나 없더니 여기는 샘플이 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 있으신 거구나..! 그리고 샘플을 들었을 때 딱 느낌이 왔습니다. 임용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문학 용어는 배울 필요 없지만 기술은 필요하다는 느낌. 딱 제가 찾던 선생님 같았습니다. 게다가 다음 카페를 통해 선생님께서 복습과제를 내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주일 넘게 제가 찾던 분이라는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밴드 스터디를 활용해 선생님 강의를 듣는 분들끼리 모여 숙제로 한 답안도 공유하고, 그러다보니 선생님 카페가 있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카페에 가 보니 매주 읽게 될 시를 미리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 미리미리 읽어보고 선생님이 수업하시듯이 syntax 구조도 파악해보고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필기도 많이 하고, 복습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제가 필기를 하고 있거나 예습을 해왔을 때 선생님께서 “이런 부분을 필기를 하란 말이지” 하시거나 “오늘 예습해왔어요?” 하시면

인강으로 만나 뵈고 있는데도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칭찬받는 느낌) 문학 용어도 첫 시간에 알려 주시고 이후 강의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집어주시는 점이 좋아요. 그 외에는 내용에 집중하게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 임용 스타일의 문제를 책에도 실어주시고 매주 과제로 내주시니깐, 스스로 복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능 공부를 하면서도 느꼈고, 선생님께서도 늘 말씀해주시지만, 복습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강의로 들은 내용을 제 것으로 다 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인의 장르를 간단히 설명해주시니깐, 이런 시가 나오면 상상력을 "더" 총동원해야겠구나, 이런 시는 쓰인 단어 자체는 쉽지만 그럴수록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상상해봐야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미시의 이해 책이 작가별 작품들이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배운 시인의 다른 시들을 복습할 수 있는 점이 참 좋습니다. 다른 주제이지만 비슷한 느낌의 시들을 읽으면, 새로운 시를 읽는 것이지만 마치 복습하는 느낌이 들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요소들을 적용하며 읽어볼 수 있어 좋습니다.

어느새 또 말이 길어져서... 이제 그만 줄이겠습니다. 편지처럼 쓴 제 글을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수강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신 티가 나고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티가 나는 김유석 선생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김유석 선생님의 명강 '영미시의 이해'

*듣게 된 계기

: 저는 이번에 초수로 준비하면서 합격 설명회 강의만 몇개 듣고 노랑진에서 유명한 타학원에 강의를 1-4월 종합반으로 등록했습니다. 결제하고 며칠 후 함께 스터디를 하자고 모인 분들이 전부 '김유석'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한다고 저에게 추천했습니다. '김유석 선생님이 누구시지?' 하고 오티 강의를 보았습니다. 임용고시 문제에 관한 직관력과 공부방법 등 분석적이고 힘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스터디원들의 권유로 1-2월 영미시의 이해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강하면서,,

(1) connotation 느끼기, 시는 문법이다!

: 저는 김유석 선생님의 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영어영문학과에서 배운 영문학 공부방법을 버려야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학의 배경과 역사를 배우면서 작가의 일생을 다루고 시에 쓰인 기법들과 그 기법들에 대한 설명을 외우는 식의 공부방법이 임용고시와 맞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셨고, 인강생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생처럼 강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는 문법이다' '이것이 명언이다' 저는 시적허용이 많아서 시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시를 읽으면서 문법과 어순을 함께 설명해주시면서 예습할 때는 자연스럽게 시 속에 있는 어구를 괄호치고 밖으로 빼면서 문법에 적합한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유석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잘못된 방법으로 영미시를 공부할 뻔 했습니다. 김유석 선생님의 강의를 적극 추천해준 스터디원에게도 고맙고, 무엇보다도 제가 효율적으로 문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양질의 강의를 선사해주신 김유석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 = 시

: 시를 해석해주시면서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게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단어 하나하나 connotation이 무엇인지 어떻게 연결해서 읽어야하는지 계속 반복해주신 덕분에, 5주차 즈음 됐을 때 sonnet-To science를 읽으며 '아~ 이 시인은 지금 현대 사회를 시니컬하게 바라보면서 이 시를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깜빡이처럼 머리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올랐을 때의 성취감이 공부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중에 임용고시에 나올만한 부분을 다양하게 집어주시고, 계속해서 강조해주신 덕분에 시험문제를 직관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조금씩 기를 수 있었습니다.

(3) 매주 나오는 과제들

: 시를 읽고 혼자 복습하고 미리 예습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스터디원들과 교수님이 주신 과제를 각자 답안을 작성한 뒤 스터디원 수에 맞게 인쇄를 해서 각자 다른 분들의 답안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각자 이렇게 답안을 쓴 이유를 얘기하고 상대방의 답안의 잘한 부분과, 개선할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시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장구조가 어려웠던 시를 다시 ordinary language로 바꿔보는 연습도 계속 한 결과, 다음에 더 복잡한 구조의 시가 나오더라도 차근차근 읽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3 교재로 영작을 하는 연습도 해보니,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은 생각지 못했는데, 강의를 통해 스터디원들과 해야할 과제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제를 다 해내고 노력하고 실천해야 제 머리 속에 남는 것들이 많고 제 손이 쓸 것이 많다는 것을 스터디를 하면서 점점 깨달아 갔습니다.

(4) 강의 중간 중간 주옥같은 명언들

: 저는 따로 김유석 선생님이 주시는 팁과 명언들을 적어 두는 핑크색 수첩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냥 흘러들으면 까먹고 넘어갈 것 같아서, 인강 듣다가 선생님이 해 주시는 조언들은 기록해두고 꼭 기억하려고 합니다. 저처럼 초수생들은 방향도 잡히지 않고, 공부방법도 익숙하지 않은 채 시작하는데 문학을 교수님의 강의 덕분에 출발선의 방향을 잘 잡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강 후

: 이제 7주차, 8주차 강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2월 수강하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강의는 저만 알고 있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계속 온라인 스터디원들이나 주변 임고생들에게 '김유석선생님 칭찬'을 입에 달고 있네요. 결승점까지 김유석 선생님, 그리고 저의 스터디원들과 함께 힘내겠습니다! 모두들 파이팅!!

Sound and Sense 수강후기

시의 단어는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도 명쾌하게 들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우선 강의를 듣기 전에 시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부분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1) 문장 구조가 난해해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 2) 해석이 된다 해도 의미가 무엇인지 implied meaning을 판단할 수 없었던 시가 많다.
- 3) 단어가 너무 어렵다 (일반적인 단어 뜻이 특이한 단어 뜻!)

근데 유석샘 강의를 듣고 혼자 시를 해석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선생님은 항상 강의 듣기 전에 혼자 단어도 찾아보고 해석을 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다 보니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시를 해석해주시면서 문장 구조도 같이 알려주셔서, 관련 지식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시의 단어는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도 명쾌하게 들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시에 대한 배경 설명해주신 부분도 정말 재밌었고, 영작숙제와 같은것을 통해서 writing연습까지 같이 되었습니다~ 합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문학공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김유석 교수님의 사운드 앤 센스 강의를 듣고 문학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영어와 문학공부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특히 시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은 일반영어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영 공부와 문학은 많이 관련되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 문제를 풀 때에 어떻게 번역해야하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에 어떤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의 주제나 어떠한 단어나 구가 함축하고 있는 뜻을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때문에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도 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시에 어떻게 접근해야할까, 어떻게 이 단어를 알맞게 해석할까 고민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유석 교수님의 사센 수업을 들으면서 시를 처음 봤을 때 주제나 키워드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고집어내야 하는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교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토대로 열심히 복습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교수님은 '시 자체'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시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도 키울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쌤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강의의 가장 좋은 점은 스스로 시를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배경지식, 작가 설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영어의 구조와 문법으로 시를 읽어 나가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단어에 대한 노출을 많이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시에 쓰이는 단어들은 문학작품에만 쓰이는 단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견은 강의를 수강하면서 깨졌으며, 많은 단어에 노출되어 제 단어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학 강의라 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뜯구름 잡듯 강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해석해 주시고,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또한 아웃풋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샘플들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수험자 스스로 문학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은 깰 수 있는 좋은 강의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미시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좋았습니다.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영어교육과 3학년 학생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임용고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인터넷강의를 찾아보던 단계에서 김유석 선생님을 알게 되어 이렇게 인터넷강의를 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sound and sence를 듣고 일반영어를 다른 강사님한테 들었었는데 앞으로는 일반영어강의도 김유석 강사님께 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학교수업 때도 이해가지 않았던 부분들도 쉽게 설명해주시고 더욱 심화적인 개념도 잘 설명해주셔서 앞으로 임용고사에 대해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화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보람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영작 연습을 하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학을 어떻게 공부할지 막막했는데 사센을 통해 매일매일 시를 한편씩 접하고, 스터디를 통해 영작 연습을 하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약 두 달간 사운드 앤 센스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기존에 다른 강사의 강의를 수강하다가 결국 다 듣지 못하고 이번엔 김유석 교수님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작품을 다루는데 비슷하지 않겠나 하고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수강을 시작했습니다. 들으면서 점점 드는 생각은 많은 내용은 전달하는 강의보다 어떻게 공부할지 알려주는 강의를 제게 잘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유석 교수님의 강의를 저에게는 그러했고 시에 대한 작품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주어진 작품을 내가 분석할 수 있는지, 그 힘을 길러주는 강의라 참 좋았습니다. 처음엔 사운드 앤 센스 전 작품을 다루지 않는 것이 단점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모든 시를 다루는 것보다 작품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눈을 길러주신 강의를 고른 것이 더 나은 결정이었습니다. 내어주시는 숙제, 영어로 직접 주제와 비유를 이용한 이유를 영어로 영작해보며 스터디원들과 함께 피드백해주는 과정 반드시 진행하겠습니다. 문학은 처음 접하시는 분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Power Prose Writing 수강후기

2달간 미친듯이 The short prose reader 책과 교수님의 사고방식만 공부했습니다.

김유석 교수님의 The short prose reader를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 **일반영어가 안되면 다른 것들은 미뤄라. 진짜 '영어'가 중요하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2달간 미친듯이 The short prose reader라는 책과 교수님의 사고방식만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한동안 오르지 않고 정체 되어 있었던 제 영어 실력이 확 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Input의 공부가 아닌 Output의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였고 강의를 통해 비록 교수님과는 인터넷으로 만나는 거지만 한 말씀 한 말씀 전부 다 받아 적으면서 교수님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 생각과 교수님 생각을 비교하면서 논리적인 교수님의 사고 방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수님과 함께 선생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정통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미소설의 이해 수강후기

세 마리 토끼를 잡게 해준 강의

영미소설의 이해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소설 문장마다 담긴 작가의 의도와 그 의미를 함께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법 설명이나,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도 있지만, 소설 자체가 문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문맥상 유추하고 이디엄 등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매 강의마다 나눠주는 자료를 미리 풀어보고 이후에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다시 답안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8주를 보내고 나면 어느 정도 소설을 푸는 방법도 익히고, 문학작품을 보는 시각도 기르게 됩니다! 일주일에 2~3개에 소설을 읽으면서 미리 읽을 때에 소설에 대한 이해도와 강의를 다 듣고 난 후에 소설의 이해도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교수님이 지도해주시는 방향으로 공부한다면 문학 공부를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미소설에 대한 흥미와 이해, 그리고 문제적용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게 되었습니다.

올해 잘한 일 중 한 가지

친구의 추천으로 3월에 신청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해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지 정말 100%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용영어에서 문학은 애매하고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작년까지는 아예 강의도 안 듣고 문학 기출문제만 조금 훑어본 게 다였습니다. 일영, 문학을 소홀히 한 것이 작년의 패인인 것 같아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막상 하려니 오히려 문학이 범위가 너무 넓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유석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니 문학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풀어야 하는지 방향설정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설명이 자세하고 어떤 면을 중점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선생님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의무감으로 느껴졌던 문학작품 읽는 일이 오히려 즐겁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게끔 해주시는 김유석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게 올해 잘한 일 베스트5에 듭니다.

문학에 눈뜨게 해준 강의

모의고사에 나와도 읽히지 않는 문학은 다 어렵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를 접하면서, 처음 어떻게 글을 대하고 읽어야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이 작품에 들어있는 사고관 또는 문학적 개념까지 학습자의 입장에서 차근차근 다뤄주셨습니다.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고, 아 문학을 이렇게 읽어야하는구나 하고 처음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문학은 배경지식과 그 작가의 환경 등을 알고 읽기보다는 하나하나 내가 단어와 구문을 이해하고 음미하면서 독해를 해나가며 읽어나가야 함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큰 깨달음을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영어/영미문학 기출변형 모의고사(5~6월)

영미문학 기출특강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계속 공부해 오면서 마음 한 편으로 걸리고 있었던 것이 영미문학이 아닌가 싶어요~ 기출을 한 번 주~~욱 보긴 했었지만 막상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라서 그 당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었던 것 같습니다. 유석쌤 강의를 듣고 생각해보니, 그 당시에 문학 지문도 대충 읽은 거 같고. 어휘도 대충 지나간 거 같고 다시 보니 어휘는 생소하고 ;;;; 풀던 순서도 엉망이었고 <전 지문부터 바로 읽었었는데 교수님말씀처럼 코멘터리를 먼저 읽는 거더라구요. 유석 쌤 말씀대로 학교방식으로 보다 보니 막상 문제가 뭘 묻는지 보다는 지문해석에만 집중한 거 같기도 하네요. 문제를 봐야 하는데.... 계속 해오던 기출인지라 요새 스터디를 해야 하나 ~ 기출도 안 되는데 다른 자료 이것저것 봐야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기출 강조하시던 말씀, 혼자해도 되는 과목이 영어학과 영어교육론 이란 말씀에 위안도 얻고 갑니다~ 이론을 보되 풀리지 않던 의문들도 잘 풀고 가구요 좋은 기회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정말 잘 들었어요.

교수님강의의 차이점은 정말 수업이 빠져들도록 재밌다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기출특강을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신청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교수님의 수업은 최고라는 것을 수업을 듣다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일반영어와 문학을 교수님 강의에 올인하고 개설 되는 강의는 거의 들었습니다. 교수님강의의 차이점은 정말 수업이 빠져들도록 재밌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Bottom up으로 해석해주는 것도 정말 정말 좋구요. 문장 하나하나 왜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시는 선생님의 강의에 저도 모르게 푹 빠져들곤 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전해주시는 깨알같은 유머도 정말 정말 박카스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강의를 듣기 전엔 기출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혼자 공부하면서 대체 이런 선택지는 왜 정답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강의를 듣고 아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의 열정적인 모습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문학, 일반영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강추입니다.

문학에도 방법론이 있다니... 약간 충격도 받았어요.

수강후기를 잘 안 믿는 저같이 문학 강의는 필요없다는 사람들에게 좀 말해주고 싶어서.... 저 같은 사람 많을 겁니다.ㅋㅋ 영어학 영교론만 기출 분석하고 문학은 답 확인하고 아 이거네. 하시는 수강생들 ㅋㅋ아닌가요. 수업 들으면서 문학 접근방식+답 고르는 방식+ 약간의 자신감. 이렇게 얻어가네요. 짧은 시간인데 많이 얻어가서 기대 만 배 이상입니다.

이제까지 기출문제를 풀기는 했는데, 복불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다른 팀 강의에서 예전에 문학을 강의 들은 적이 있는데, 강의를 듣고 책을 봐도 도저히 작품이 나오면 접근하는 방법이나 문제를 푸는 것을 도무지 모르겠더라구요. 작품에 대한 배경설명이 대부분 강의 내용이었는데, 그것만으로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 그 작품의 시대나 제목을 모를 경우 전혀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학은 뭐 운 좋으면 맞추고 아니면 틀리는 건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김유석 선생님의 기출강의를 듣고 알게 되었어요. **철저하게 작품을 꼼꼼히 해석해가며, "모든 답은 지문에 있다." 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이 사실을 진즉에 알았더라면, 수많은 문학 작품과 강의를 무조건 듣기보단, 작품을 꼼꼼히 보는 법을 알려주는 진짜 강의를 듣고 실력을 쌓았을 텐데 하는 뒤늦은 후회도 들고,,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감사해야죠 ㅋㅋ Bottom up식의 문학 강의라는 말이 딱 와닿는 건 단연코 저뿐만이 아닐 듯 해요, 문학을 이제껏 이렇게 접근한 적이 없었거든요 감동이라 해야 할까,, 공부 3년 만에 알게 된 신세계랄까... 그리고 특강이라고 솔직히 내용보다는 보통 그렇듯 홍보의 목적이 많은데, **선생님 강의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4시간 가까이 한 작품도 대강 넘어가지 않고, "기출 = 김유석 특강" 이면 될 것 같은 꼼꼼한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이 수업을 위해
많이 분석하고 연구하신 것 같아서 믿음이 갑니다!**

여전히 유쾌하시고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샘플강의는 강의 소개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강의를 통해 최신 트렌드에 걸맞은 기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대한 기출문제를 다 풀어서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험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영어 기출을 공부하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선생님이 이 수업을 위해 많이 분석하고 연구하신 것 같아서 믿음이 갑니다! 김유석쌤과 함께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영미시의 이해 교재를 보고 퀄리티에 정말 만족하였습니다. 김유석 쌤의 서답형 기출해설서로 철저히 기출분석하고 시험장에 가고 싶습니다.

기입형 집중대비 월든(Walden) 특강 수강후기

**저의 독해실력과 문법실력에 실망했는데 선생님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작년에 김유석쌤 상반기 강의를 다 들어서 올해는 김유석 선생님 강의와 교재를 혼자 복습하고 스터디도 병행하면서 5-6월에 월든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월든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독해실력과 문법실력에... 실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힘들고 자책도 많이 했지만 그만큼 더 자극이 돼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월든 지문자체가 저에겐 좀 어려웠습니다. 진도 나가는 해당부분 예습한 뒤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많이 놀랐고.. 솔직히 저는 교수님 강의들 중에 월든 문제풀이 특강이 가히

최고의 강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용학원가에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은 김유석 쌤 밖에 없는 거 같아요. 깊이 있는 구문분석과 문학적 산문에 대한 통찰력 있는 독해.. 그리고 퀄리티 높은 문제까지.. 정말 정말 좋은 강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김유석 선생님께서 강의준비를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겠죠. 언제나 수강생들을 위해 애쓰시는 김유석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고등학교 교과서를 활용한 Output 모의고사 수강후기

처음에 이 강좌를 신청할 때 반신반의 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 문제들을 풀어볼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내가 아는 것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은 별개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생각 들었고, 어차피 내가 가르칠 학생들 교과서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기초에 충실하면서 스타디를 병행하면서 답안연습을 스타디원과 같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 임용공부를 하다보면 자꾸 주위에 신경 쓰게 되고, 남들이 보지 않는 어려운 원서를 공부해야 합격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는데 김유석 쌤 말대로 기초에 충실하면서 영어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면서 이 기간 동안 고등학교 문법서도 같이 공부하게 되었어요.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김유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전모의고사 (7월~11월) 수강후기

논리적인 글 분석과 답안 구성법이 기가 막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수를 올려주는 강의"

"처음보는 지문을 풀게 만들어주는 강의"

"논리를 가르쳐주는 김유석 교수님의 강의가 제대로 된 강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ㅠㅠ 1월부터 쭉 커리타고 있는 수강생인데 특히 이번주 모의고사 강의는 진짜 감동의 쓰나미입니다. 논리적인 글 분석과 답안구성법이 기가 막힙니다ㅠㅠ 진짜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직접 채점 다 하시기 정말 힘드실 텐데 감사합니다. 교수님~~ 항상 뒤에서 교수님 응원합니당!!

직접 채점 다 하시기 정말 힘드실 텐데 힘내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

뒤늦게 들었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첨삭 받으면서 핵심내용 빠지는 거 점검하다보니 저의 답이 생각보다 글을 구체적으로 못 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도 꼼꼼히 설명해주시고 또 끝나고 질문도 끝까지 다 받아주셔서 지문의 이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문제 풀 때는 어려워도 강의 듣고 논리연결해보고 그런 반복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정확한 독해 연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감. 잘. 유지해서 이 시험 잘 보고 싶네요. ^^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지문을 풀게 만들어주는 논리를 가르쳐주는 강의

강의를 수강하는 동안에는 아~ 알겠다~ 재미있다~ 그렇게 되는데 막상 문제를 풀면 이게 답일 것 같다 하고 찍는 수준과 내 생각으로 서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보던 지문이 나오면 자신감까지 생겨서 그런지 곧잘 푸는데 처음 보는 지문을 보면 두려운 마음까지 생겨서 저도 모르게 당황하게 되구요. 그런 악순환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처음 강의를 선택할 땐 저도 모르게 재미있는 강의를 선택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수를 올려주는 강의, 처음 보는 지문을 풀게 만들어주는 논리를 가르쳐주는 김유석 교수님의 강의가 제대로 된 강의인 것 같아요.

최고점 답안을 보고 직접 베껴 써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솔직히 첫 해에는 모고조차 시간에 맞춰 풀지 못했고, 서술형은 아예 손도 못 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문이 문제가 아니라 답안에서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올해는 그동안 선생님을 믿고 했던 공부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김유석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할지 말지를 고민하신다면, 일단 한번 들어보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저와 맞을지 안 맞을지 오랜 시간 고민했었지만, 지금은 참 현명한 선택이었던 거 같습니다. 참,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수업준비 열심히 하신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연습, 복습하는 시간보다 선생님이 수업 준비하신 시간이 더 많은 거 같아 겸손해지더라고요;; "

일반영어/영미문학 부동의 1위!! 김유석 전공영어 정규강의 커리큘럼

2019학년도 영미시, 영미소설 2문제(8점) 적중!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월
Power Reading Skills	Power Prose Writing	최근 7개년 기출분석	핵심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Final 모의고사
영미시의 이해	영미소설의 이해				

: 동영상강좌에만 있는 특강: ① 김유석교수의 Sound & Sense 영미시 특강
② 월든(Walden) 기입형대비 집중특강
③ 고등학교 53종 교과서분석 특강

김유석 교수 Power 전반기 강좌소개

1. Power Reading Skills, 4th

- ① 모든 영어 임고생의 일반영어 공부 교과서
- ② 최고의 일반영어 강의! 막연하던 일반영어, 지금까지 알던 일반영어공부의 대전환!
- ③ 부교재 Vocabulary 암기

2. Power Prose Writing

- ① 2020학년도 기출 서술형 유형에서 제일 도움 받았다는 강의!
- ② Context Reading & Paraphrase 집중연습
- ③ 부교재 Idioms 3000개 암기

3. 최근 7개년 기출분석

- ① 7-8월 모의고사로 가기 전 필수코스!
- ② 고득점을 위한 임용문제 접근 Top Secret!
- ③ 일반영어/영미문학 최근 7개년 출제방식과 디렉션 분석

4. 월든(Walden)

- ① 기입형 중심의 문제풀이
- ② 글의 구조와 Flow Reading의 결정판!
- ③ 왜 김유석 선생님인지 알게 해주는 강의!

5. 영미시의 이해 4th

- ① 영미시 강의의 명불허전! 모든 영어 임고생의 필수
- ② 영미시 읽는 법을 가르쳐주는 강의!
- ③ 배운 작품에 대한 기출유형의 문제 제공

6. 김유석교수의 Sound & Sense 영미시 특강

- ① <영미시의 이해> 강의와 중복되지 않는 Further Studying Poetry
- ② <Sound & Sense> 원서 강의의 원조
- ③ 테마별, 작품별 동영상 편집이 되어있어, 하루 1작품 영시공부

7. 영미소설의 이해 2nd

- ① 2019학년도 적중교재!
- ② 김유석 선생님의 영미시 강의가 유명해서 수강했는데, 혹시나 해서 소설 강의도 들어 보니 영미시보다 더 강의가 좋다고 극찬하는 강의
- ③ 비문학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의 차이를 알려주는 강의

8. 고등학교 53종 교과서분석 특강

- ① 김유석 교수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발췌한 지문과 응용문제를 통해 'Output'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강의
- ② 기본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강의

김유석 교수 Power 후반기 강좌소개

영어 임고생들이 극찬하는 김유석 교수의 모의고사는 5개월 과정의 Data 축적의 모의고사로서, 특히 매년 직강생들의 경우, 김유석 교수의 채점 Clinic을 통해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력과 답안 작성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코멘트를 통해 단순히 일반영어, 영미문학만이 아닌 전 영역의 점수향상을 경험하고 있다.

1. 7~8월 핵심모의고사

- ① 모든 영어 임고생의 일반영어/ 영미문학의 기본 모의고사
- ② 실제로 김유석 교수의 과년도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적이 있으므로 2020학년도 대비 모의고사를 제외한 이전 모의고사 문제에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만을 엄선, 변형하여 출제함.
- ③ 김유석 교수의 날카로운 채점 Clinic

2. 9-10월 실전모의고사

- ① 모든 영어 임고생의 일반영어/영미문학의 실전모의고사
- ② 새로운 문항으로 출제
- ③ 김유석 교수의 날카로운 채점 Clinic

3. 11월 Final 모의고사

- ① 모든 영어 임고생의 일반영어/영미문학 최종점검 모의고사
- ② 7~10월까지의 모의고사를 통해 수험자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모의고사
- ③ 김유석 교수의 날카로운 채점 Clinic

[HOME](#)
[국내도서](#)
[외국도서](#)
[eBook](#)
[온라인 중고서점](#)
[중고매장](#)
[커피](#)
[음반](#)
[DVD](#)
[알라딘굿즈](#)
[북몰](#)
[서재](#)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임박구\(나\)](#)

통합검색 >

전공영어 >

검색

[상세검색 >](#)

[분야보기](#)
[추천방법](#)
[베스트셀러](#)
[새로나오책](#)
[새로운책](#)
[출판사랭킹](#)
[이벤트](#)
[추천도서](#)
[싱글즈](#)

통합검색 (262)

국내도서 (195)

외국도서 (67)

eBook (0)

온라인 중고서점 (223)

중고매장 (...)

커피 (0)

음반 (0)

DVD/블루레이 (0)

알라딘굿즈 (0)

서재 통합검색 (...)

결과내 검색

☐ 검색어 제외 [적용](#)

검색 조건

☒ 제목

☒ 저자

☒ 출판사

☒ ISBN

☐ 태그

☐ 목차

☐ 주제어

[적용](#)

분야별 보기 [전체 선택](#)

국내도서

- ☐ 과학(2)
- ☐ 대학교재/전문서적(65)
- ☐ 소설/시/희곡(1)
- ☐ 수험서/자격증(148)
- ☐ 외국어(5)
- ☐ 컴퓨터/모바일(1)

외국도서

- ☐ ELT/어학/사전(3)
- ☐ 중국 도서(64)

[적용](#)

출간일

3M 12M 24M 36M 60M 전체

리뷰수

5개+ 10개+ 50개+ 100개+ 전체

별점

2개+ 3개+ 4개+ 5개+ 전체

제고상태

품절/재판
재고 판매가

1만 2만 3만 전체

[적용](#)

저자

김유석탐 전공 영어 연구소 ~2010 New 전 공영 어 기출 변 환 문제집
[저자포기](#)

목차
시리즈
분류
태그

- 송무원연결 기술결론 300
- 월간최신 취업에 강한 예유월 시사상식 2018.5 (무로통 열상강의)
- 스펀디스 면접 답변 매뉴얼
- 이 책 듣고 미국 가자
- NCS 기반 채용 2018~2019 공기업 취업전략 가이드

2월 특별 선물!

알라딘 북마크 2019 Edition

▶ 2월 특별 선물_알라딘 북마크 2019 Edition!

“전공영어” 총 262개의 상품이 검색되었습니다.

정확도순
상품명순
판매량순
평점순
리뷰순
출시일순
저가격순

업선 설정
25개
[icon]
[icon]

1 2 3 4 5 6 7 8 9 10 11~11, 끝
[전체 선택](#)
[장바구니 담기](#)
[보관함 담기](#)
[미리보기](#)

1. ☐

POWER Reading Skills
김유석 탐

[새창열기] [미리보기]

[대학교재/수험서/외국어/컴퓨터 - 신학기 혜택 출간일]
[국내도서] 김유석 일반영어 Power Reading Skills - 3판
 김유석 (지은이) | 교육의향 | 2018년 12월
 25,000원 → **25,000원**, 마일리지 1,250점 (5% 적립)
 세일즈포인트 : **2,195**

지금 **택배로 주문하면 내일 수령**
 최근 1주 95.7% (중구 중립동) [구매방문](#)

2. ☐

영미서의 이해
(Understanding English & American)

[새창열기] [미리보기]

[대학교재/수험서/외국어/컴퓨터 - 신학기 혜택 출간일]
[국내도서] 김유석 영미문화 영미시의 이해 - 중등교원임용 전공영어
 김유석 (지은이) | 교육의향 | 2015년 11월
 26,000원 → **26,000원**, 마일리지 1,300점 (5% 적립)
 ★★★★★ (3) | 세일즈포인트 : **2,128**

지금 **택배로 주문하면 3월 5일 출고**
 최근 1주 95.7% (중구 중립동) [구매방문](#)

스프링분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도서입니다. [자세히보기](#)

3. ☐

POWER 임용 VOCA
김유석 탐

[새창열기] [크게보기]

[대학교재/수험서/외국어/컴퓨터 - 신학기 혜택 출간일]
[국내도서] POWER 임용 VOCA - 중등교원임용고사를 위한 전공영어 일반영어 기출어휘집 | 전공영어 김유석 일반영어/영미문화 시리즈 2
 김유석 (지은이) | 교육의향 | 2017년 9월
 13,000원 → **13,000원**, 마일리지 650점 (5% 적립)
 ★★★★★ (2) | 세일즈포인트 : **1,658**

지금 **택배로 주문하면 내일 수령**
 최근 1주 95.7% (중구 중립동) [구매방문](#)

스프링분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도서입니다. [자세히보기](#)

4. ☐

POWER 전공영어 기출해설서
(일반영어/영미문화)

[새창열기] [크게보기]

[대학교재/수험서/외국어/컴퓨터 - 신학기 혜택 출간일]
[국내도서] POWER 전공영어 기출해설서 - 2판 | 전공영어 김유석 일반영어/영미문화 시리즈 3
 김유석 (지은이) | 교육의향 | 2018년 2월
 34,000원 → **34,000원**, 마일리지 1,700점 (5% 적립)
 세일즈포인트 : **1,155**

지금 **택배로 주문하면 3월 5일 출고**
 최근 1주 95.7% (중구 중립동) [구매방문](#)

스프링분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도서입니다. [자세히보기](#)

5. ☐

2020 전공영어 핵심체크 영어학
(2020 전공영어 핵심체크 영어학)

[새창열기] [크게보기]

[대학교재/수험서/외국어/컴퓨터 - 신학기 혜택 출간일]
[국내도서] 2020 전공영어 핵심체크 영어학 - 교원임용고사 대비 | 2020 전공영어 핵심체크 시리즈
 윤도현 (지은이) | 열린교육 | 2019년 1월
 18,000원 → **16,200원** (10% 할인), 마일리지 900점 (5% 적립)
 세일즈포인트 : **990**

지금 **택배로 주문하면 3월 5일 출고**
 최근 1주 95.7% (중구 중립동) [구매방문](#)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 키우는 강의”

“모든 시험 준비의 첫걸음은 그 시험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는 기술문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김유석 선생님께서 두차 강조를 하였던 사항이고 이에 공감을 합니다.

김유석 선생님께서 수업중에 항상 강조하신 기술 문제 분석의 필요성과 마구잡이로 이거 나올 거 같다고 적어서
아마추어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김유석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How to address 를 머릿속에 유념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예시와 땀방 터지는 유머러스한 수업이 개인적으로 너무 잘 맞아서 좋습니다.”

- simac -



“언제 그 많은 걸 다 보나...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올 것도 아닌데 굳이...”

“임고 준비생은 기술부터 봐야한다” 라고 하셨을 때..
“언제 그 많은 걸 다 보나...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올 것도 아닌데 굳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는 기술 문제 볼 일도 못 낼 것 같고요.
일반영어의 기술문제는 영어학과 영교 과목과는 또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학과 영교는 내용 중심으로 봐야 한다면 일반영어는 정말 분석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서 문제만 풀고 답 맞춰봤을 때에는 180도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함을 느꼈습니다.
“출제자의 마인드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 지금도 어렵지만 진리인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뤄주신 부분이 너무 많아서 복습할 때 정말 해야 할 분량이 산더미같았지만 믿고 그대로 하다보니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성적도 올라가서 자신감이 생겼던 강의였습니다.”

- 김*주 -



2017년 7~8월 실전모의고사 **직강 16분만에 마감!**
9~10월 실전모의고사 **직강 200명 마감!** 에 이어서
2018년 7~8월, 9~10월 모의고사 **직강 첨삭만 마감! 4회 연속마감!**

일반영어/영미문학의 최고 전문가



김유석 교수

[약력]

성균관대 영문학과 학사 졸업
성균관대 영문학과 석사 졸업
일리노이 주립대 TEFL과정 부분수료
(전)박문각 임용학원 전공영어 교수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특강교수
건국대/홍익대/숭실대 임용특강
2009~2010년 EBS 교원임용 전공영어 대표강사
(현)월비스임용고시학원 전공영어 대표교수
(현)임고야 전공영어 대표교수

[저서]

김유석 영미문학(박문각, 2003)
김유석 일반영어 기본이론(형설출판사, 2003)
김유석 일반영어(유형편)(형설출판사, 2003)
중등임용고시를 위한 영미문학(박문각, 2004)
기본일반영어(형설출판사, 2004)
영미단편소설(고원출판사, 2005)
일반영어/영미문학 문제집(고원출판사, 2006)
영미문학 이것만은 알고가자(고원출판사, 2006)
영미문학개론(경문사, 2007)
기출 코퍼스(corpus)어휘집(교육의창, 2008)
김유석팀 일반영어(형설출판사, 2009)
영미단편소설강독(교육의창, 2009)
전공영어기출변화문제집(교육의창, 2009)
전공영어 2차대비 전공논술 자습서
(교육의창, 2009)

All in 영미문학(교육의창, 2010)
All in 일반영어(교육의창, 2010)
일반영어를 요리하다(교육의창, 2011)
영미문학을 찾아 떠나는 여행(교육의창, 2011)
Essential Reading Skills(경문사, 2013)
Essential Literature(경문사, 2013)
영미단편소설 모음집(교육의창, 2014)
영미시의 이해(교육의창, 2014)
전공영어 서답형 기출해설서(교육의창, 2014)
임용일반영어(교육의창, 2014)
임용VOCA3300(교육의창, 2014)
Power Reading Skills(교육의창, 2015)
Walden 특강(교육의창, 2015)
POWER 임용 VOCA(교육의창, 2017)
POWER 전공영어 기출해설서(교육의창, 2017)

